PROGRAM

제2회 환황해포럼

2nd Pan-Yellow Sea Forum

第二届 环黄海论坛

第2回 環黄海フォーラム

2016년 11월 3일(목)~4일(금)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时间：2016年11月3日(周四)-4日(周五)
地址：忠清南道公州市艺术中心GOMA

日時：2016年11月3日(木)-4日(金)
会場：忠清南道公州市アートセンターコマ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동아시아재단 East Asia Foundation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후원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2회 환황해포럼 PROGRAM

2nd Pan-Yellow Sea Forum

第二届 环黄海论坛

第2回 環黄海フォーラム

Contents

韓國語 …… 3

中國語 …… 23

日本語 …… 37

韓國語

프로그램

날짜	시 간	프로그램	
1일차 11월 3일 (목)	09:00-09:40	등록	
	09:40-10:30	개회식	개회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축 사: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환영사: 오시덕 (공주시장) 기조연설: **'평화오딧세이에서 본 환황해 평화공동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10:30-11:30	특별세션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사회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발표자: •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한국의 시각에서'**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일본의 시각에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학 총장, 전 일본 방위대신) •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중국의 시각에서'** 진징이 (북경대학교 교수)
	12:00-13:00	오찬	
	13:00-14:30	본세션	**평화1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회자: 김광억 (산동대학교 인문사회대 1급교수) 발표자: • **'아시아 평화번영의 길: 생활유학 가치 공유'** 황위쉰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의 현황과 과제 – 교류의 목표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장호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 **'산둥성과 충청남도의 유가문화 협력교류 전망 시찰'** 정샤오슝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충남-산동 유교 문화교류의 실천방안 모색'**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평화2 "황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환황해권 해양 협력확대 – 해양환경을 위주로" 사회자: 김웅서 (한국해양학회 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발표자: • **'황해 환경오염실태 및 개선대책'**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 전 한국해양학회장) • **'황해 생태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토바이 사다요시 (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지부장) • **'한·중 황해 공동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권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우리 공동의 황해: 해양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심층 토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장자오후이 (중국-PEMSEA 지속가능연안관리협력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4:30-14:50	휴식	
	14:50-16:20	본세션	**번영1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사회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 글로벌화'** 김도훈 (서강대 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 **'지방경제발전중의 중소기업문제 – 중국 위해시를 중심으로 –'** 자오유푸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번영2 "환황해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회자: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발표자: • **'태안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 활용 전략과 한류3.0'**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MBA 교수) • **'공급사슬 네트워크는 어떻게 중소기업의 융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공급사슬금융시각'** 송위엔팡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 **'환황해권 문화관광자원 활용의 기반이 될 한일협력방안'** 오타니 신타로 (한난대학 국제관광학과 교수) 토론자: 김영섭 (성균관대 디자인대학원 건축학 교수)

• **시간** 2016년 11월 3일(목)~4일(금)
• **장소**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날짜	시 간	프로그램	
	16:20-16:40	휴식	
	16:40-18:10	본세션	**공생1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발표자: • **'환황해 지역 대기오염의 거시적 배경 구조 및 개선과정 중 지방정부의 역할'** 왕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경제연구소 연구원) • **'충남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유 호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 **'한중일의 대기오염 극복을 위한 고효율 석탄화력기술의 협력체제 구축'** 윤민호 (일본국제금융정보센터 아시아부 특별연구원) 토론자: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공생2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도전과 과제" 사회자: 유용구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발표자: •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수소에너지의 전망'** 우치다 히로히사 (도카이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 **'충남 태양광 산업의 정책적 방향'** 김준태 (공주대학교 교수) •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개발 현황'** 임철호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토론자: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일차 11월 4일 (금)	09:30-11:00	특별세션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비전 2030"** 사회자: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발표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 의제와 과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중국 여성지위 제고 국가 메커니즘의 회고와 분석'** 장용핑 (전국부녀연합회 산하 여성연구소 명예연구원) • **'아베 정권의 '1억 총활약 사회'와 여성 정책'** 센다 유키 (일본 무사시대학 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김양희 (젠더&리더십 대표)
			"동아시아 청년의 미래" 사회자: 강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발표자: • **'꿈-자본, 그리고 '다른' 미래의 생성'**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일본 청년의 20년 간의 변화와 불변: 성찰과 청년 미래'** 테라치 미키토 (이바라키대 인문학부 교수) • **'본토와의 연결을 통한 성장: 미래를 찾고 있는 대만 원주민 청년들'** 왕정용 (대만 국립정치대학 사회사업연구소 부교수) 토론자: 김예란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1:00-11:20	휴식	
	11:20-12:20	자치단체회의	**"한·중·일 지역별 취약 재해·재난 유형 및 대응 노력 (재난관리시스템)"** 사회자: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12:20-13:30	폐회 오찬	

개회사

도민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귀빈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환황해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환황해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제1회 환황해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올해 두 번째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환황해권을 평화의 중심으로,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이끌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세기까지 세계의 질서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가 제국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따라 서로를 적대적 대립관계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 질서 내에서 약소국은 침략을 당해 식민지로 전락했고, 약소국의 국민은 사람으로서 권리를 짓밟혔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또한 20세기의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아직 지난 역사의 상처와 갈등이 많습니다. 식민지의 상처, 전쟁의 상처도 아직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황해 지역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불안한 평화 상태로는 지속적인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낡은 가치와 갈등구조를 그대로 존속시켜서는 그 어느 나라도 새로운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건 외교와 안보의 핵심 목표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전통적인 부국강병의 군사주의 노선도, 무역장벽을 높이는 중상주의 정책도 더 이상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는 존재합니다. 전쟁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침략을 당한 나라들 뿐 아니라 침략국인 일본의 국민들 역시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렸고, 국가의 이름 아래 희생되었습니다. 20세기의 방식으로 자국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시민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은 오로지 평화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환황해 지역을 평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무이자, 번영의 길입니다. 환황해권이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땅,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가장 자유로운 통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 세기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이미 평화로 가는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동양평화사상을 통해 우리가 단결하고 주도적으로 아시아의 공영과 평화를 이끌 때, 우리에게 번영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황해를 둘러 싼 갈등을 해소하고 환황해를 아시아의 중심, 돈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풍요와 번영의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 통상, 환경 등 한 국가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형제애를 키우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다양하고 많은 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환황해 포럼이 그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지도자들께서 '아시아의 번영과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훌륭한 통찰과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나아가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황해를 둘러 싼 아시아 각국이 서로 공생하고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기 바랍니다.

오늘, 백제의 얼이 서린 고도 공주에서 미래 환황해 수역의 번영과 공생과 평화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3일

충청남도지사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제2회 환황해포럼』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자랑스러운 백제유산을 품고 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본 포럼을 마련해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포럼의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충남의 미래이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가 간 군사·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엉키며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큰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황해권은 이미, 금융·기술·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환황해권의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하며, 각 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간다면,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아시아 지방정부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발돋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공생'을 도모하게 될 '환황해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동아시아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축사

제2회 환황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11월 환황해포럼이 출범한 후 올해 다시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공생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환황해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충남 공주에서 개최된 것은 공주가 백제의 고도(古都)로서 황해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의 중심에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황해는 예로부터 황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게 교류의 통로로, 번영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환황해권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환황해권 주요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인구와 GDP 측면에서 전 세계의 1/5을, 교역액은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3국 협력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설립된 3국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유동적인 정세로 인해 3년 반 동안 정체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현재 한·중·일 3국은 21개의 장관급 협의체, 60여개의 실무급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도전 요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시켜나가는 것이 크게는 동북아 지역, 작게는 오늘 초점을 맞출 환황해 지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 △해양협력 확대, △경제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시대에 지중해가 평화와 번영의 통로와 무대가 되었듯이, 동아시아 국가가 황해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21세기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생의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환황해 포럼을 주최한 충청남도 및 동아시아 재단,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측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이번 포럼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대한민국 외교부 1차관 임성남

환영사

국내·외 귀빈여러분, 세계유산 도시 공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제2회 환황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주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쇼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의 경제와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주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은 물론 각 국가의 지방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각 국가의 지방은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지역으로서 과거 황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주고 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공주에서 개최되는'환황해 포럼'이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주는 1500여년전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백제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백제유적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문화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더해 주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을 축하하며, 아시아를 넘어 인류 발전의 새로운 힘이 되는 '환황해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공주시장

기조연설

황해를 보물선으로 가득 채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지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충청남도에 오니 벌써 넉넉한 인심이 느껴져,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만, 충청도와 인연이 깊습니다. 제 처가가 바로 충청도거든요. 돌아가신 저의 장인어른께서, 충남 서천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충청도에 오면 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충청도하면 '우국지사들의 본향'으로 유명하지요. 서천 출신인 월남 이상재, 천안 출신인 유석 조병옥 선생 등이 바로 이곳 영명학교로 유학와서 공부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잠시 영명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했고, 3 · 1 운동 때는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준석 열사가, 공주 공설시장에서 시위를 주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와 품격의 도시, 웅진으로 불렸던 옛 백제의 수도 공주에 오면서, 심볼 마크,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제의 무령왕 왕릉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인심 좋은 도시 공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무령왕은 용맹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돌본,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확고한 국방태세와 정치개혁으로, 국가기틀을 바로 세우고, 적극적 백성 구제와 농민계층 안정화로 세수 증대를 꾀해서, 백척간두에 섰던 나라를 정상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로 제 이야기를 시작한 건, 오늘날 우리의 위기 상황이 무령왕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듣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맞는 말일까요, 이 땅에서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 있을 때, 경보음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제게 기조연설을 제안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만, 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북 · 중 국경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같은 극동러시아, 그리고 북 · 러 국경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북한의 국경 너머 북쪽엔 문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60여 개 국가를 물류와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로 묶는 '일대일로' 전략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발표한 모스크바-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7000㎞에 달하는 이 구간을 고속철로 연결하면,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육로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될 게 분명합니다.

러시아를 향한 중국의 구애는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만강 하구의 북 · 러 접경도시인 하산에서 가까운 자루비노항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싶어합니다. 장차 열리게 될 북극항로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처럼 세계를 잇고자 하는 중국의 관심 어디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동쪽으로 달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탓도 있지만, 러시아의 미래가 극동지역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듯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앞장서서 연해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정치 수도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문화 수도라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제 수도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오디세이 일행이 돌아본 연해주의 변화는 생생했습니다. 세계 정상인 러시아 클래식 음악과 발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린스키 극장이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문을 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극동시대의 개막을 겨냥하고, 한 · 중 · 일 고객을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정통 발레를 보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만 가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했던 동방경제포럼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고, 두 해 연달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같은 러브콜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입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러 · 일 양국의 정상은 열네 번이나 만났습니다. 연말까지 두 번을 더 만납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다음달 15일에는 자신의 고향인 일본 남부 야마구치로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 회담을 갖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북방 4개 도서를 돌려받겠다는 게 첫째고, 둘째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선점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집요한 노력과 푸틴 대통령의 실리 추구는, 결실의 실마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러·일 철도 구상이 그 결과물입니다. 양국은 하바롭스크에서 사할린을 거쳐 홋카이도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면, 섬나라 일본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한국이 오히려 북한에 가로막힌 섬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반도의 반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작은 땅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반도의 반도성을 회복해서, 대륙으로 달려가고, 해양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저는 황해에서 그 가능성을 봅니다. 황해를 둘러싼 한 · 중 · 일 3개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2, 3,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전세계 GDP의 21%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22%를 가진 거대 경제권입니다.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 세 나라에 전세계 부의 5분의 1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지역공동체가 하나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지요. 북미에 NAFTA가 있고, 유럽에 EU가 있으며, 동남아시아에는 ASEAN이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Africa Unity, 즉 아프리카연합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황해는 어느덧 갈등의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동북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 지출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140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일본이 410억 달러, 한국이 340억 달러의 국방비를 씁니다. 세계 최대로 6000억 달러를 쓰는 미국의 국방비 중, 상당부분이 이 지역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계 국방비 총액인 1조7000억 달러의 3분의 1이, 동북아에서 쓰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 쓴『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에서, "평화와 협력은 번영을 가져오고, 대립은 혹독한 대가와 비용을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와 협력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그의 조언을 듣지 않은 인류가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게 됨으로써 증명된 케인스의 통찰은, 오늘날 황해에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세계 GDP의 21%가 모여있는 곳이 황해권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지정학적 갈등을 지경학적 협력으로 풀고, 황해를 평화와 협력의 지중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 피에트로 도란 도란캐피털파트너스 회장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나 접해있는 황해에서 용이 솟아오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그 용의 머리를 봤다"고 말한 것도 다른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황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해만이라 부르는 보하이만 일대를 개발하는, '환(環)보하이만 경제개발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동성과 베이징-천진-대련으로 이어지는 발해만 연안도시를 연결해 물류, 산업, 무역 개발지대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는 대련-심양-장춘으로 이어지는, 동북 3성 개발 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또 중국은 산동 반도와 대련을 잇는 해저터널도 구상 중입니다.

우리가 환(環)황해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황해에 접한 한국의 서부벨트,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가 그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래로는 새만금이 있고, 위로는 평택과 인천이 있는, 서부벨트의 중심으로 새로운 황해 시대를 열어갈 적격자입니다. "보령 앞바다의 섬 외연도에 가면,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충남 아닙니까. 환(環)황해시대의 물류와 생산에서, 최적의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해 연안 도시가 발달할수록, 해외 투자자들도 환(環)황해 지역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어디서 만들든, 충남 해안도시를 이용하면 바로, 중국 연안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근 거리에 세종시가 있고, 주변에 사방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한국의 남동부에서도,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내수시장화하는 것이 한국 수출의 돌파구라면, 충청남도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동벨트를 시작으로, 경부축 벨트를 거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서해안 벨트가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이미 충남은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2000년 15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290억 달러로 열아홉 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이는 여덟 배에 그친 전국평균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5대 항만 가운데 당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개설된 한 · 중 항로는 14개입니다만, 내년에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산동성의 영성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 또 열립니다. 충남도청이 바다가 더 가까운 내포신도시로 청사를 옮긴 것도, 환(環)황해시대에 대처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황해는 한 · 중 · 일 3국간 교류의 바다였습니다. 각종 재화를 실은 3국의 배들이 황해를 누볐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신안선 유물에서 발견합니다. 1975년 신안선을 발굴한 이후, 40년 동안 황해의 25개 해역에서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침몰한 고선박 14척을 확인했으며,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도자기가 10만점에 이릅니다.

통일신라 때 3국의 해상무역을 주름잡았던 장보고의 청해진이나, 멀리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 찾아와 '코리아'라는 이름을 서방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고려 때의 벽란도, 그리고 중국 무역선의 순항을

위해 용왕에 바치는 희생물이 되어 황해도 앞바다인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 이야기 역시, 예나 지금이나 황해가 한 · 중 · 일 3국을 잇는 핵심 채널임을 말해줍니다.

'평화 오디세이 2016' 일행들은 지난 8월 안중근 의사가 단지동맹을 맺었던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 의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의사는 저서『동양평화론』에서, 황해에 면한 여순에서 한 · 중 · 일 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이곳을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3국의 평화를 위해 3국이, 황해를 교류 협력의 무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안 의사는 100년도 훨씬 전에 내다봤던 것이지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따르면, 한 · 중 · 일 3국은 화폐를 공유하고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그야말로 유럽연합 못지않은 통합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중심도시가 여순일 필요는 없습니다. 황해를 평화와 협력의 지중해로 만든다면, 그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한 도시가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환(環)황해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열차에 올라타려면, 러시아와 일본이 만나는 테이블에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려면, 우리는 황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해를 한 · 중 · 일 3국의 교류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에게 모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3국의 해상교류협력을 주도하게 만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황해를 '평화와 번영의 지중해'로 만든다면, 그 바다에 면하고 있는 북한 역시 지금처럼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역시 제 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제2의 청해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황해가 풍요와 번성을 실은 보물선들로 가득 찬 평화의 바다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소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JTBC 회장

홍석현은 중앙일보와 JTBC 회장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및 同大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홍 회장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재무장관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삼성코닝 상무/전무/부사장으로서 일하였다. 1999년 홍 회장은 중앙일보 발행인, 인쇄인, 사장직을 거쳐, 2006년 중앙일보 회장직과 2011년 JTBC 회장직에 취임하였다. 이에 더해 홍 회장은 세계신문협회 회장, 제35대 한국신문협회장, 세계문화오픈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20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삼극위원회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회장, 아시아재단 이사, 서예진흥위원회 위원장,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사, 한국기원 총재, 그리고 채텀하우스 고문으로서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홍 회장은 태평양세기연구소에서 'PCI 빌딩 브릿지스 어워드 (개인부문)', 여성인재를 양성한 공로로 연세대 남녀공학 50주년 기념 특별공로상, 그리고 1984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홍 회장은 중앙일보 회장직과 JTBC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키메프대학교 국제관계학, 세종대학교 공공정책학, 그리고 포스텍 전자전기공학에서 각각 명예박사를 취득하였다.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문정인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이자 영문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 편집인이다. 또한 미국 UC 샌디에고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의 크라우스 명예 연구원이다. 문정인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한국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하였으며, 지금까지 40편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였고 각종 학술지 및 연구서에 300편이 넘는 논문 및 논평을 게재하였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전 장관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하였다. 2012년 7월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구성한 'Post-2015개발 의제를 위한 UN 고위급 패널'의 일원으로 임명되어 2015년 이후의 개발협력목표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외교부에서 퇴임한 후 2015년 3월까지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장과 국제대학원 초빙석좌교수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한양대 사회봉사단장 겸 국제학부 특훈교수로 재임 중이다. 김 전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5-87간 영국 런던대에서 연수하였다. 또한 2003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외국어대학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 敏)
다쿠쇼쿠대학 총장, 전 일본 방위대신

모리모토 사토시는 현재 다쿠쇼쿠대학 총장 및 일본 방위성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제 11대 방위대신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는 일본 외무성에서 영사이주정책과장, 정보조사국 기획과 안전보장정책실장 등 여러 직책을 수행했다. 또한 주 나이지리아 일본대사관 참사관, 주 미 일본대사관에서 일등 서기관을 지냈다. 모리모토 사토시는 미국 터프츠 대학교 (Tufts University) 플레처 스쿨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선임연구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수석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그는 외무성 입성 전,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복무하였다.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



진징이(金景一) 북경대학교 교수

1953년생. 중국 연변대학교 중문학부를 졸업하고 북경대학국제관계학원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해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일본 게이오대 지역연구소 객원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문연구원,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을 거쳐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 한반도연구중심 상임부주임을 역임했다. 현재 북경대 외국어학원 교수로 있으며, 한반도문제포럼 주임, 중앙민족대 특임교수, 중한교류협회 이사, 중국아시아아프리카발전교류협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김광억(金光億) 산동대학교 인문사회대 1급교수

김광억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대중국학회와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를 창립하였다. 김 교수는 하버드 대학과 북경대학교, 남경대학교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서 중국관계 강의를 하였다. 김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중국 교육부로부터 인문사회과학 일급교수로 특임되어 산동대학에 재직 중이다. 중국에 관하여 국내외 저명 학자로서 "혁명과 개혁 중의 중국농민"을 비롯한 많은 저서가 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중국 연구로 사회인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황위쉰(黃玉順)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1957년 8월 청두 출생.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직은 산둥 '태산학자' 특별초빙전문가이자 산둥대학 유학고등연구원 교수 겸 부원장이다. 국제유학연합회 이사, 중화공자학회 상무이사, 중국철학사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유교연구센터 학술위원, 중국인민대학 공자연구원 학술위원, 스촨대학 국제유학연구원 학술위원회 부주임이기도 하다. 당대 유학 주요 학파인 '생활유학'을 창립하였으며, 중국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최신 연구 영역인 '중국 정의론'을 발표했다.



장호수(張浩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1956년 경기 시흥 출생.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사학(고고학)으로 문학석사를 획득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청주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였다. 문화재청 전문위원,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및 원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1997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저서에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관리〉(2000), 〈문화재학개론〉(2002),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2008), 〈문화재보존활용론〉(2012)이 있다.



정샤오슝(鄭少雄)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정샤오슝은 북경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중국-티베트 관계, 티베트 원주민 족장들의 정치학, 역사인류학, 생태인류학이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 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3년 이후로는 인류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사회문화인류학연구 센터(Center for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Studies (CASS)) 서기장이다. 정 박사는 중국 서남쪽의 민족 관계와 지역 거버넌스를 다룬 최근 저서 Kangding Native Chieftains between the Han Chinese and Tibetans: A life History of the Last Mingzheng Tusi (1902–1922) (Beijing: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16)를 비롯하여 다양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최근 "History, reciprocity and the management of public environmental resources in Western China Mountains" (2016, Manchester), "Grassland Policy in Contemporary Inner Mongolia and the Responses of Mongol Herdsmen: Cases of two Young Men"(2015, Toronto), "'Wula' in Sichuan Tibetan Area: A Way of Transportation as the Representation of Morality, Aesthetics and Ethnic Identity" (2010, Seoul) 등의 주제로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상균(李相均)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1973년 경북 경주 출생.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를 졸업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인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2015년에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일제 식민지 해항도시의 근대적 재편성 연구(2013)〉, 〈현대 중국사회 종족 전통의 실천과 맥락(2013)〉, 〈서울 근교 종중과 종중재산의 변용(2016)〉 등이 있다.



김웅서(金雄西) 한국해양학회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저환경자원본부 선임연구원

해양자원연구본부장, 선임연구본부장, 제1부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생물과 해양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이기도 하며, 한국해양학회장,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부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수엑스포지원단 단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자문위원으로 역할하여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국제활동으로는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 국제해양광물협회(IMMS) 이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해양생물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해양실크로드 탐험대장을 맡고, 프랑스 심해유인잠수정 노틸을 타고 북동태평양 수심 5,000m가 넘는 심해를 탐사하여 한국인으로는 가장 깊이 탐사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100여권의 해양관련 저서, 편저서, 역서, 감수서 등을 출간하였으며 해양과학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학사와 이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중기(崔仲基)
인하대 명예교수, 전 한국해양학회장

최중기 교수는 인하대학교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소장,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소장, 해양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동 대학 명예교수이자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이자 국시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원생생물학회 회장, 국제황해학회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해양 수산부 해양정책 자문위원과 한국해양학회 회장을 맡았다. 2008-09 년 중국해양대학 방문교수 겸 중국과학원해양연구소 방문교수이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미 메릴랜드 대 및 우즈홀 해양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해양학 이학박사를 수여받았다.



토바이 사다요시(東梅貞義)
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지부장

1965년 출생. 1990년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교양학부 이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자연자원관리를 전공, 1991년에 석사를 취득하였다. 1992년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일본에 들어가면서 일본 국내의 중요 습지에 대한 보전 활동에 몸담게 되었다. 2000년부터 국제 자연보호 프로젝트, 황해 생태지역(ecoregions) 보전 프로젝트를 발족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중국과 한국 연안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11년 7월부터 자연보호실장을 맡았다.



권재일(權宰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1972년생. 부산대학교 해양과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 졸업 후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에서 해양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장기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소장을 거쳐 지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장자오후이(张朝晖)
중국-PEMSEA 지속가능연안관리협력연구소 부소장

1970년생.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연구원이며 해양생태계 평가와 관리기술 연구단체의 선도자이다. 현재 중국-PEMSEA 해안벨트에서 관리합작센터의 부주임을 계속 맡고 있으며, 국가급 해양 생태문명시범구역에서 심사하는 전문 위원이며, 국가급자연보호구역의 심사전문위원이자,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역의 심사 전문위원이고, UN동북아시아해양보호구네트워크(UN-ESCAP NEAMPAN)에서 위원회 국가의 위원들을 지도하는 등, 사회와 학술 부문을 겸직하고 있다. 2005년 이래로 40여 개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면서 국내외 정기간행물에 50 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역저 포함 5부의 저작을 출판하였으며. 국가해양국 해양과학기술상 2등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참석자 소개



허재영(許再寧)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재영은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이다. 허 교수는 또한 대전환경운동 상임의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충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겸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 지회장을 지낸 바 있다. 허 교수는 1989년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공학박사를 받았다.



안충영(安忠荣)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안충영 박사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다. 안충영 박사의 주요경력으로는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06.05-14.07),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10.06-12.06),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09.01-10.06),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08.04-11.05), 1974년에서 2006까지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하는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02.01-05.01) 등 민관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現代東アジア經濟論」日本 岩波書店, 2000,「現代 韓國□東아시아 經濟論」博英社, 2001.「現代東亞經濟論」北京大 出版社, 2004, 등이 있으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Asian Journal of Economics, Global Asia 등 세계적 학술지와 단행본 시리즈에 논문을 등재 하였다.



김도훈(金道薰) 서강대 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김도훈은 2016년 2학기부터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산업생태계'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그 이전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79년에 산업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동향분석실장, 산업정책실장, 국제산업협력실장, 연구본부장 등의 보직을 거친 후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장 직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해외연수, 국제기구 근무 등의 경험을 두루 쌓았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프랑스 파리 1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 사이에는 OECD 무역국에서 수석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 사이에는 미국 워싱턴대학교로 가서 방문학자로서 활동하였다. 산업연구원에 재직하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문관),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석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관세심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연구 및 강의의 전공 분야로는 통상정책 (FTA, WTO 등), 산업정책, 규제개혁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소개하고 자문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규제학회와 한국EU학회의 학회장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이러한 전공 분야와 관련한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 60년사 - 산업」, 「한미·한EU FTA 발효와 제조업의 대응」, 「한중일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경제개발 전략 프로그램 개발협력 모델」, Final Report of the Policy Consulting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Algeria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lgeria,「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효과 분석」, 「한일 FTA 체결 시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자오유푸(赵玉璞)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1964년생. 산동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었으며, 한국 호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산동대학교 위해캠퍼스 강사, 위해시 표준화연구소 소장, 위해경제기술개발구청 부청장을 거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산동대학교 위해캠퍼스 부총장이자 교수로 있다. 또한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주임을 겸한다. 주 연구분야는 한반도 정치경제이다.



이승신(李承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이승신 박사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한 바 있으며, 2012년 7월부터 2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팀장을 맡고 있다. 최근 연구 성과물로는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와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공저)' 등이 있다.



이장우(李章雨)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자부품연구원 이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사)한국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경영학회 회장, (재)창조경제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전략경영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공정경제 분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01년에는 미국 Journal of Management 최고논문상을 수상했고, 국내외 권위 있는 학회지에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경영전략,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 등)한 바 있다. (재)창조경제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1인 창조기업', '청년창직', '창의인재동반제도' 등 창조고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출간물로 〈혼경영〉, 〈벤처경영〉, 〈스몰 자이언츠,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발경영〉 등이 있다.



고정민(高定敏) 홍익대 문화예술MBA 교수

고정민은 현재 세종학당 재단 이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 MBA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6~2009년까지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였으며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문화콘텐츠 경영전략(2007)〉, 〈창조지구, 문화생산의 전위(2009)〉 〈한류포에버(2012)〉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미 피츠버그 경영대학원 마케팅 과정을 수료하였다.



송위엔팡(宋远方)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1957년생. 중국 인민대학교 정보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중국 인민대학교 상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물류관리, SCM관리, 기업전략과 정보화를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의약물류와 SCM 관리〉 〈SCM 관리와 정보기술〉 〈E-Biz〉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예제집〉(all in Chinese)이 있다. 중국 물류학회 부회장, 중국 교육부 E-Biz 교수 전문가 위원, 중국 인민대학 SCM 경영전략연구센터 주임, 중국 인민대학 중소기업연구소 부주임 등을 겸직했다.



오타니 신타로(大谷新太郎)
한난대학 국제관광학과 교수

도야마현 출신. 릿쿄대학교 대학원 관광학연구과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한난대학 국제관광학과 준교수로 관광마케팅론, 관광정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 연구 테마는 관광현상과 정보기술의 관계, 관광경영, 마케팅이다. 주요 저서로는 〈IT혁명과 여행업〉〈관광실무핸드북〉(all in Japanese)가 있다.



김영섭(金瑛燮)
성균관대 디자인대학원 건축학 교수

김영섭 대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취득 후 1982년 건축문화설계연구소를 개설하였고 2007년 까지 (주)김영섭+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김영섭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많은 해외 심포지엄 발표와 함께 작품전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풍 2000 타이틀의 일본 동경 임해부도심 신도시계획과 신일본 행정수도계획 및 중국 심양의 어린이 궁전 계획의 건축가로 초대된바 있다. 또한 동경 대학과 그라나다 대학 등 외국의 유수 대학에서 초청 강연 회를 가졌으며, 2007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좌교수로 초빙된 후 2008년 부터 동대학 건축 학과 교수와 건축디자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고, 성균건축도시설계원(SKAi)원장을 역임하였다. 사회활 동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도시와 주거를 주제로 한 제4차 IAA 국제심포지움 서울 대회 조직위원장,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래너, 서울시도시디자인포룸위원회 위원장, 서울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바 있고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포럼 위원 장, 세종시추진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환경디자 인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바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경제비전위원회 정주환경분과위원장 및 안면도개발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강릉시 올림픽준비관련 도심재생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건축 관련 성과로는 김수근 건축상,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건축문화대상 등 많은 건축설계수상작이 실려 있는 작품집은2003년 호주 이미지사(Images Publishing)에 의하여 세계 100명의 마스터 건축가 전집 시리즈 중 제53번째 작가로 선정 출간되었다. 그리고 세계건축가 1000인명사전에 마스터 아키텍트로 등재되었고, 2007년 일본 Art Design 출판사에서 발간된 '세계건축가 51인의 사상과 작품(World Architects 51 Concepts&Works)'에 선정 수록되었다.



강현수(姜賢秀) 충남연구원장

강현수는 대통령 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충남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영국 Oxford 대학과 미국 MIT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였으며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충남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 〈현대 도시이론의 전환〉, 〈신지역발전론〉,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도시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왕리(王丽)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연구개발과지역경제연구소 보조연구원

주요 연구 방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발전이다. 최근 국가 부처와 위원회 및 지방 위탁 각종 연구 과제 50여개에 참여했다. 학술간행물에 논문 30여편을 발표하였으며, 단독저서 1부, 공동저서 1부를 출판했다. 주요 저서에 〈베이징텐진허베이지역 자원개발이용과 환경보호연구〉 〈자원환경시각에서의 중국도시 잠재력연구〉 〈중국육해(陸海) 총괄발전연구〉(all in Chinese) 등이 있다.



김선태(金善泰)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선태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자 환경문제 연구소장으로 재임 중이며 충청남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대전충남시민 환경연구소 이사장 겸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 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대학교 산학 협력단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환경대학원을 거쳐 일본 교토 대학에서 환경공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호(兪湖)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석사를 취득한 유호 과장은 현재 환경부 과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유 과장은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과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으로 일했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장직을 역임하였다.



윤민호(尹敏鎬)
일본국제금융정보센터 아시아부 특별연구원

윤민호는 세계은행 연구원이자 동서증권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국제금융센터 특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사무소 대외총괄관 대외총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와세다 대학 일한글로벌 연구소 객원연구원이었으며 일본 재무성 동북아시아 연구위원이자 와세다대학, 레이탁구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윤민호는 한양공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여, 일본 동경공업대학대학원,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동경경제대학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를 받았다.

참석자 소개



박재묵(朴在默)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1년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015년 8월 정년퇴임 때까지 이 대학에 재직하였고, 현재 같은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다. 초기에는 발전사회학에 관심을 가졌었으나, 1990년경 환경과 사회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지금까지 주로 환경사회학 분야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 및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주요 저술로는 「대전사회론」(공저, 2013년, 대전발전연구원), 「한국 사회학의 미래: 사회학의 위기 진단과 미래 전망」(공저, 2015년, 나남), 「환경사회학: 자연과 사회의 만남」(공저, 2015년, 한울) 등이 있다. 사회학 분야의 주요 학회인 한국사회학회(2011년), 한국환경사회학회(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NGO학회(2007년부터 2009년까지) 등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학계 바깥에서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유용구(劉容九)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충북대학교에서 물리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캐번디쉬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선도산업실장을 거쳐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있다.



우치다 히로히사(内田裕久)
도카이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1949년생. 1977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5년부터 81년까지 맥스플랭크금속연구원(Max-Planck-Institute for Metals Research)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도카이대학교 공학부 원자력공학과 및 전략적 평화 국제연구소(SPIRIT)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일본 KSP Inc.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이다.



김준태(金俊泰) 공주대학교 교수

김준태 교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건축환경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부 소속으로 있다. 건축에서의 태양에너지 이용 및 건물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전문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태양에너지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의 태양에너지냉난방프로그램(SHC), 건물에너지프로그램(EBC), 태양광발전시스템프로그램(PVPS) 등 국제협력사업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영역은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태양광열(PVT) 복합시스템, 고효율 단열재 건축적용 기술 등이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기술운영위원, 조달청 설계평가위원, 충청남도 교육청 설계자문위원, 대전시 건축위원, 홍성군 건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철호(任哲鎬)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임철호는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기술개발팀 파트장으로, 2007년 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992~1996년 변속기를 설계하고 개발하였으며 1996~2001년까지는 환경차 구동계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이후 2006년까지 환경차 전략을 기획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노상양(盧相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1957년생.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해 왔다. 효율기술처 효율2팀장, 광주전남지사 기술부장, 자금운용처 자금심사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팀장,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장, 경남지역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년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취임했다. 2005년에 전력수급 유공자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에너지절약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정선(安正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안정선은 현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제 6대 원장이며,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동대학 학생처장, 동대학 간호보건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림청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자문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등의 정부활동 및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요 연구로는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방안(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매뉴얼(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2012)", "지역사회간호총론(현문사, 2012)" 등이 있다.



이나영(李娜榮)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나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여성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전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 여성학과 교수직을 임했다. 현재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편집위원장, 한국질적연구학회 이사, 정의기억재단 이사, 한국여성의전화 감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위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서울시 학술용역심사위원회 위원 등 역임하였다.



장용핑(蒋永萍)
전국부녀연합회 산하 여성연구소 명예연구원

전국부녀연합회 산하 여성연구소 명예연구원으로, 중화여자대학 겸직교수이자 중국혼인가정연구회의 상무이사 겸 부 비서장이다. 중국노동협회, 중국가정교육학회상무이사, 중국부녀연구회, 중국사회학학회이사, 국무원부녀공위원회 가정전문조 회원이기도 하다. 주 연구 방향은 여성의 지위와 성별 간 평등 측량 및 평가, 여성상태 조사 및 분석, 여성노동취업, 사회성별과 공공정책이다. 저술/주 편집한 학술저서로는

〈새로운 시기 중국여성 사회적 지위 조사 및 연구〉 〈사회전형적인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사회전형적인 도시 여성의 일과 가정〉 〈중국의 성별 평등과 여성발전보고서〉 (in Chinese) 등 십 수 편이 있다. 잇따라 중국사회과학기금을 돕고, 전국부녀자연합과 국가통계국연합이 조직한 "제1, 2, 3 기 중국 부녀자 사회적 지위 조사 연구" 과제를 연구하였다. 국무원부녀공위원회 2011-2020년 중국여성발전 개요 구조와 전문가 건의안", 전국부녀자연합, 과학기술부 "여성 고위층 인재 성장 발전 상황과 정책 추진" "양성평등과 여성 발전 지표 연구 및 응용" 등의 연구과제와 항목에 참여하였다. 국가통계국과 UN인구기금의 "성별 통계 발전과 개진" 항목의 전문 고문이다.



센다 유키(千田有紀) 일본 무사시대학 사회학부 교수

도쿄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졸업 후, 동 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에서 교육학 석사를, 사회계연구과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도쿄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를 거쳐 현재는 무사시대학 사회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일본형 근대 가족-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성학/남성학〉(all in Japanese) 등이 있다.



김양희(金良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양희는 현재 젠더앤리더십 대표이자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로 있다. 또한 여성인력활용과 양성평등실천TF 컨설턴트와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수로 재임 중이며,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 및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충남양성평등비전위원회 위원,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김양희 대표는 Loyola University Chicago에서 사회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경력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M연구본부장, 평등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숙명여대와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여성, 리더 그리고 여성리더십 (삼성경제연구소), 「지속가능하고 성 인지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환경개혁과제(환경부), 「기업 내 남녀관리자 비교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 다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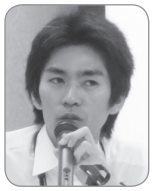
강명구(姜明求)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강명구 소장은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신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강 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동아시아 미디어론, 비판커뮤니케이션, 질적연구방법론, 미디어 문화연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 도쿄대학교 및 중국 전매대학 특임교수를 지냈고, 중국 칭화대학과 베이징대학에서 지난 6년간 강의하고 있다. 세계문화학회 아시아지역 대표이사,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장 및 자유전공학부 추진단장, 교수학습 개발센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대 글쓰기 센터를 설립했고, 과학기술글쓰기 교육을 제도화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몇 년간 냉전과 텔레비전 방송의 문화사, 해방 후 한국 소비문화의 형성, 동아시아 가족관계 재현 비교, 지식생산의 식민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저서로는 《한국 저널리즘 이론》,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가족과 미디어》(공저),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공편) 등이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애국적 열망과 숭고한 과학"(공저), "문화적 냉전과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HLKZ"(공저), "Are our families still Confucian? Representations of family in East Asian television dramas"(공저), "중국 텔레비전 시청자의 드라마 소비 취향 지도"(공저), "어떤 학자와 교수를 키울 것인가?: 대학 평가와 지식 생산" 등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홍중(金洪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프랑스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공은 사회 이론과 문화사회학이며, 최근에 동아시아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현상과 그들의 꿈의 능력을 탐구하고 있다.



테라치 미키토(寺地幹人) 이바라키대 인문학부 교수

테라치 미키토는 일본 이바라키 대학의 교수이다.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청년, 노동, 교육 분야를 연구했다. 최근 저술로는 "The Transformation of Youth Attitudes to Economic Success in Japan"(2016년, ISBN 9784769915775, 일본어 저술) 과 "대도시 거주 20대의 직업의식 분석" (2016년에 한역, ISBN 9788963472454)이 있다.



왕정용(王增勇)
대만 국립정치대학 사회사업연구소 부교수

왕정용 교수는 대만 국립정치대학 사회사업연구소의 소장이자 부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사업 석사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박사를 획득했다. 그는 고령화, LGBT, 토착민 인권 분야에서 소비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TAFC(Taiwan Association of Family Caregivers)의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Journal of Taiwan Radical Quarterly in Social Science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김예란(金艾瓓) 광운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예란 교수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컬리지에서 수학했고, 현재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직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와 사회 현상, 특히 주체의 윤리학과 감수성의 사회적 실천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친다. 저서로는 〈말의 표정들〉과 〈우리-사람: 생명들의 더불어 있음에 관해서〉 등의 공저와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재은(李在恩) 충북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공 분야는 위기관리, 재난관리, 조직이론이다.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정책포럼 회장, ISCEM(International Society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국제위기관리학회) 공동회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안전충남비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회 환황해포럼 PROGRAM

2nd Pan-Yellow Sea Forum

第二届 环黄海论坛

第2回 環黄海フォーラム

中國語

节目

日期	时间	节目	
2016年 11月 3日 (周四)	09:00-09:40	到场确认	
	09:40-10:30	开幕式	开幕辞：安熙正(忠清南道知事) 祝　辞：尹锡禹(忠清南道议会主席), 林聖男(外交部第一次长) 欢迎辞：吴施德(公州市长) 主旨演讲：“通过和平史诗中展望环黄海和平共同体” 洪錫炫 (中央日报会长)
	10:30-11:30	特别单元	“环黄海和平共同体构想” 主持人：文正仁(延世大学名誉特聘教授) 发表人：• “环黄海和平共同体构想—韩国的视角” 金星焕(汉阳大学杰出教授、前韩国外交通商部长官) • “环黄海和平共同体构想—日本的视角” 森本敏(拓殖大学校长，前日本防卫大臣) • “环黄海和平共同体构想—中国的视角” 金景一(北京大学教授)
	12:00-13:00	午餐	
	13:00-14:30	本单元	和平1 “构建基于亚洲精神文化的人文交流网络” 主持人：金光億(山东大学人文社会大学1级教授) 发表人：• “生活儒学价值的分享与亚洲和平” 黄玉順 (山东大学儒学高等研究院副院长) • “环黄海儒学文化交流方案” 张浩秀 (忠清南道历史文化研究院院长) • “忠南-山东省间儒学文化交流合作的展望与考察” 郑少雄 (中国社会科学院教授) • “忠南-山东间儒学文化交流的实践方案探寻” 李相均 (忠清南道历史文化研究院高级研究员)
			和平2: “为和平利用黄海扩大环黄海圈海洋合作—海洋环境为中心” 主持人：金雄西(韩国海洋学会会长、韩国海洋科学技术院责任研究员) 发表人：• “黄海环境研究的问题点” 崔仲基(仁荷大学名誉教授，前韩国海洋学会会长) • “以海洋环境为中心的黄海地区国际合作” 东梅贞义(世界自然基金会日本分会会长) • “中韩黄海联合研究的过去、现在与未来” 权宰一 (韩国海洋科学技术院责任研究员) • “我们共同的黄海：对海洋生态环境保护的深层探讨与国际合作的重要性” 张朝晖 (中国—PEMSEA可持续沿岸管理合作研究所副所长) 发言人：許再寧(大田大学土木工程系 教授)
	14:30-14:50	休息	
	14:50-16:20	本单元	繁荣1: “中韩FTA与忠南中小企业的全球化” 主持人：安忠荣(韩国共同成长委员会委员长) 发表人：金道薰(西江大学教授，前产业研究院院长) 赵玉璞(中国山东大学东北亚研究所所长) 李承新 (对外经济政策研究院中国组组长)
			繁荣2: “环黄海地区文化旅游产业的培养” 主持人：李章雨 (庆北大学经营学系教授) 发表人：• “以泰安郡为中心的文化旅游资源战略及韩流3.0” 高定敏 (弘益大学文化艺术MBA教授) • “供应链网络如何能增强中小企业融资能力:供应链金融视角” 宋远方 (中国人民大学教授) • “以韩日合作为基石的环黄海圈文化旅游资源活用方案” 大谷新太郎 (阪南大学国际观光学教授) 发言人：金瑛燮 (成均馆大学设计研究院建筑学系教授)

● **时间** 2016年11月3日(周四)~4日(周五)
● **地址** 忠清南道公州市艺术中心GOMA

日期	时间	节目	
	16:20-16:40	**休息**	
	16:40-18:10	**本单元**	**共生1: "环黄海地区大气污染现状与改善过程中地方政府的作用"** 主持人: 康贤秀(忠南研究院院长) 发表人: • **"探究环黄海地区大气污染的基本结构及合作管理方案"** 王丽(中国发改委国土开发及地球经济研究所研究员) • **"忠南地区大气污染现状与改善过程中地方政府的作用"** 金善泰(大田大学环境工程学系教授) • **"东南亚地区环境合作现状"** 俞湖 (环境部海外合作负责官) • **"未来中日韩的环境技术合作: 进化的高效技术与环境改善战略"** 尹敏镐 (日本国际金融信息中心亚洲部特别研究员) 发言人: 朴在默 (忠南大学社会学系名誉教授)
			共生2: "为转换能源政策的地方政府挑战与课题" 主持人: 劉容九(忠南高科技园政策企划团长) 发表人: • **"普及氢能的过程中社会与人民的作用"** 内田裕久(东海大学核工程系教授) • **"忠南太阳能产业的政策性方向"** 金俊泰 (公州大学教授) • **"现代汽车亲环境汽车开发现状"** 任哲鎬 (现代汽车高级研究员) 发言人: 盧相梁 (能源管理公团新再生能源中心所长)
2016年 11月 4日 (周五)	09:30-11:00	**特别单元**	**"为东亚可持续发展的性别愿景2030"** 主持人: 安正善 (忠南女性政策开发院院长) 发表人: • **"为韩国可持续发展的性别议题与政策课题"** 李娜荣(中央大学社会学系教授) • **"推进男女平等基本国策及中国特色的性别主流化"** 蒋永萍 (中国妇联旗下女性研究所名誉研究员) • **"安倍政权的 '一亿总活跃社会' 及女性政策"** 千田有紀 (日本武藏大学社会学系教授) 发言人: 金良姬 (Gender & Leadership代表)
			"东亚青年的未来" 主持人: 姜明求(首尔大学亚洲研究所长) 发表人: • **"韩国青年梦想的资本"** 金洪中 (首尔大学社会学系教授) • **"日本青年近20年的变化与未变: 重返与他们的未来"** 寺地幹人 (茨城大学人文学系教授) • **"通过与本土的联系成长: 寻找未来的台湾青年"** 王增勇 (台湾国立政治大学社会事業研究所副教授) 发言人: 金艾瓏(光云大学舆论信息学系教授)
	11:00-11:20	**休息**	
	11:20-12:20	**环黄海自治团体会议**	**"中-日-韩各地区脆弱的灾害-灾难类型及应对措施(灾难管理系统)"** 主持人: 李在恩(忠北大学教授)
	12:20-13:30	**闭幕午餐**	

开幕词

尊敬的各位道民，以及国内外嘉宾！欢迎参加第二届和平与繁荣的环黄海论坛。
首先，非常感谢在百忙之中抽出时间参加本届环黄海论坛。

忠清南道继去年以亚洲和平共同体迈出第一步，并成功举办了第一届环黄海论坛后，今年又将举办第二届环黄海论坛。此次论坛将以环黄海圈和平为核心，致力谋求打造环黄海亚洲地中海的交流与合作方案。

直至20世纪，世界的秩序由适者生存与弱肉强食的逻辑所支配。随着世界的帝国主义、国家主义与民族主义，笼罩了相互敌对的对立关系。然而，在其秩序内弱小国遭侵略而沦落为殖民地，弱小国国民的人权也被蹂躏。事实上，我们东亚也因20世纪的侵略与战争经历了不幸的历史。

我们决不能重蹈20世纪不幸历史的覆辙，但是亚洲各国之间仍存很多过去历史的伤痕与纠纷，殖民地的伤痕与战争的创伤也仍未治愈。虽然环黄海地区的发展充满活力，但以现在的不稳定和平状态绝不能实现持续性繁荣。如果。如实存续20世纪的陈旧价值与纠纷结构，任何国家都无法实现新繁荣。

任何国家外交与安保核心的目标应是和平，以国家权力的侵略战争积累财富时代已终结，传统的富国强兵路线和提升贸易壁垒的重商主义政策也不能守护和平与繁荣。一个国家是为维护平凡市民的生命与财产、提高经济性繁荣机会而存在。战争，对平凡的市民是灾难。发生太平洋战争当时，不仅给被侵略国家和侵略国日本的国民造成了深重的饥饿与疾病磨难，他们均在国家之名下牺牲。如果欲以20世纪的方式，实现自国的繁荣是妄想。市民作为这片土地的主人，只有安全和丰饶的生活才能守护和平。

和平管理环黄海地区是东亚各国的义务，亦是繁荣之路。环黄海圈为对世界投资者更具投资吸引力，应该打造最安全之地、最成熟的民主主义、最自由的贸易通商。1世纪前安重根义士为我们指明了走向和平之路，通过东洋和平思想携手团结、积极带动亚洲共赢与和平之时，我们才有繁荣的机会。这就是我们所有的时代宿命。

我们应该消除围绕黄海的纠纷与矛盾，为黄海创造亚洲中心、资本与人文交流自由的富饶繁荣之“亚洲地中海”，需要积极的探讨。亚洲各国应该就经济、通商、环境等一个国家难以解决的各种热议，集思广益、畅所欲言、谋求发展之路。我们迫切需要唱响兄弟情，增进交流与合作的各种挑战。对此，我们忠清南道的环黄海论坛欲求走在前头。

最后，我真心期待国内外领导人为迈出“亚洲繁荣与共生之路”的“忠清南道作用”，提出远见卓识的对策。进而，通过构建“亚洲和平共同体”愿景与课题的探讨，希望围绕黄海的亚洲各国开启互利共赢、合作发展之路。

今天，我们聚在百济魂魄牵引的古都——公州，就未来环黄海水域探讨繁荣、共生与和平，我再次向各位表示由衷的感谢。
谢谢！

2016年 11月 3日

忠清南道知事

祝辞

尊敬的各位来宾，大家好！
第二届环黄海论坛在民族灵山鸡龙山和传承百济文化遗产的公州市以“亚洲繁荣与共生之路”的主题召开，可谓其意义重大深远，我们210万道民衷心祝贺大会圆满成功。

首先，谨向继去年承办第二届论坛的安熙正忠清南道知事和相关人士的热情与努力，表示衷心的感谢。
同时，也向在百忙之中抽出宝贵时间前来参加本论坛的各位国内外来宾，表示热烈的欢迎。
我们之所以关注“环黄海”，是系于忠南的未来，还有东北亚中心的亚洲未来。尤其，中日韩三国是东亚历史的竞争者，亦是合作者。

然而，近来各国之间的军事、政治、经济的利益关系错综复杂，而为共同繁荣的努力也无大进展、仍停滞不前。届时，东亚各国地方政府积极谋求增进友好方案、为可持续未来发展而苦恼，其意义非常深刻。

环黄海圈已跃升为金融、技术、基础设施等全球经济的核心。因而环黄海圈的国家不该是竞争，而应该侧重于共助，各国的地方政府共存各领域的优点与改进部分，只有巩固合作，定会实现同步发展。

今后，我们忠清南道议会也为亚洲地方政府之间共同繁荣的举踵，不惜积极的关心与支持。

最后，为谋求亚洲“和平”与“繁荣”、“共生”的“环黄海论坛”将年复一年更加发展，愿以东亚繁荣为承诺契机。谢谢。

2016年 11月 3日

忠清南道议会议长

祝辞

首先,对环黄海论坛的举办表示热烈祝贺。

自去年11月环黄海论坛出台以来,今年再次以“走向亚洲繁荣与共生之路”为主题召开第二届环黄海论坛。届时,中日韩三国专家汇聚一堂,为东亚和平与繁荣、共生方案将深入探讨,有着深刻的意义。

今天召开论坛的忠南公州是百济古都,亦以黄海为中心的交流与合作中心,因其意义重大、影响深远。自古以来,黄海是周边国家的交流枢纽,亦是迈向繁荣与共生的通路。环黄海圈基于悠久的历史,正发展成象征着经济与政治的枢纽地区,中日韩主要3国的人口与GDP占世界的1/5、交易额占为1/6, 3国的合作将超越东亚地区,进而贡献于世界的和平与繁荣。

各位来宾!

一直以来,韩国政府为带动东亚的主要国家中日韩3国合作发展,尽心尽力、尽责尽职。同时,还在首尔吸引了于2011年9月设立的3国合作事务局,不仅如此因东北亚的流动性局势,停滞3年半的中日韩三国首脑会议也于去年11月在首尔召开,为恢复三国合作体制也作出了贡献。鉴于此, 8月在日本东京成功举办了中日韩外交长官会议。目前,中日韩3国正启动21个长官级协商机制及60余个工作协商机制等持续着活跃的合作。

东北亚地区因朝核、导弹挑衅等共存着各种挑战因素,机智地克服这些挑战并实现合作潜力方才是聚焦本论坛,乃至东北亚环黄海地区的课题。基于此,本论坛应积极探讨△建立东亚和平共同体 △扩大海洋合作 △增进经济和文化交流方案等谋求东亚地区和平与稳定是正合时宜。

最后,谨向为主办本环黄海论坛的忠清南道及东亚财团、以及韩国科学技术研究院未来战略研究院,表示衷心的感谢。祝愿本论坛取得重大深远的成就。

2016年 11月 3日

大韩民国 外交部1副部长 林聖男

欢迎辞

尊敬的国内外来宾，欢迎各位前来世界文化遗产城市公州。

首先，祝贺“第二届环黄海论坛”以“亚洲繁荣与共生之路”为主题召开，也谨向在公州承办论坛的安熙正忠清南道知事和相关人士，深表谢意。

目前，我们生活在基于社交媒体实时与世界沟通的时代，世界各国的经济与文化息息相关，不断变化和发展。

全球化带给我们新的潜力与机会，但也同时引起各种复杂的问题与矛盾。

为此，只有国家之间的合作，当然是各国地方政府之间的紧密合作，才能有效解决这些问题。

特别是，共享环黄海的各国地方政府是具有众多文化共同点的地区，过去我们是通过黄海的文化之窗得以发展。

我衷心希望此次在公州召开的“环黄海论坛”复燃这些历史性意义，原为实现环黄海地区的和平与繁荣助一臂之力。

公州是具有1500余年灿烂百济文化的中心之地，蕴含着百济丰富多样性的历史与文化遗产之城。尤其，我们公州市的百济遗址公山城与宋山里古坟自去年列入为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名录，获得世界性的其价值。

我们公州市为继承和发展先祖的优秀文化遗产倾尽一切努力，也努力打造留给子孙后代的新文化遗产，同时积极推进国际交流。

最后，愿此次论坛给予我们希望与自信，搭建促进交流与合作的重要平台。

最后，再次祝贺此次论坛的承办，愿“环黄海论坛”超越亚洲成为人类发展的新动力。

2016年 11月 3日

公州市长

关于参加



洪錫炫 中央日报会长

洪錫炫是 中央日报会长兼 JTBC长。 毕业于首尔大学 电子工程系， 在斯坦福大学研究生院获得工业工程 学硕士，经济学博士学位。

洪錫炫主要社会兼职：世界银行研究院， 财政部长 秘书， 总统秘书办公室秘书长助理，韩国开发研究院 研究员，三星coning 常务， 专务，副总经理。 1999年 洪錫炫曾经过中央日报发行人，印刷人，总经理，2006年终于上任中央日报会长兼 JTBC长。洪錫炫世界报纸会长，第35届 韩国报纸会长，世界文化开放 组织委员会长，第20届驻美 韩国大使，三级委员会亚太委员会 副会长，亚洲基金会理事，书法振兴委员会长，战略国际问题研究院 理事，韩国棋院总裁， 王立國際問題研究所(英国)顾问 等多方面。

洪錫炫在太平洋世纪研究院(PCI)获得‘PCI建设架桥赏’(个人部门)，以鼓励培养女性人才的功勋获得延世大学男女同校50周年纪念特别功劳赏，还有1984年得到了总统奖状。他在中央日报会长兼 JTBC长中，在KIMEP大学国际关系学，从世宗大学公共政策学，在 浦项工科大学电子电器工程学得到名誉博士。



文正仁 延世大学特聘名誉教授

文正仁是延世大学特聘名誉教授，英文季刊《寰球亚洲》(Global Asia)编辑，美国加利福尼亚大学圣地亚哥分校全球政策战略研究院的克劳斯名誉研究员。他历任延世大学国际研究生院院长、总统直属东北亚时代委员会委员长(长官级)和韩国外交通商部国际安保大使，迄今著书40余本，在各种学术期刊、研究报告刊载300余篇的论文及评论。



金星煥 前外交通商部部长

前部长金成昱是职业外交官出身，于2010年10月至2013年3月任大韩民国外交通商部部长。金前部长于2012年7月，被任命为由潘基文联合国秘书长建立的“2015年后发展议程联合国高级小组”一员，并参与讨论了2015年后发展合作目标的制定。金前部长自卸任外交部长官后至2015年3月担任首尔大学全球社会贡献团团长和国际研究生院特聘教授，现任汉阳大学社会志愿团长兼国际学部特训教授。金前部长毕业于首尔大学经济学系，1985年至1987年到英国伦敦大学进修，并于2003年被乌兹别克斯坦撒马尔罕外国语大学授予名誉政治学博士学位。



森本敏 拓殖大学校长，前日本防卫大臣

森本敏现任拓殖大学校长及日本防卫省特别顾问，曾任任第11任防卫大臣、日本外务省领事移民政策科长、情报调查局企划和安全保障政策室长等多个职务。此外，还历任驻尼日利亚日本大使馆参赞和驻美日本大使馆一等秘书。森本敏还曾任美国塔夫茨大学(Tufts University) 弗莱彻学院(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的高级研究员和布鲁金斯学会的首席客座研究员。他在入外务省前曾服役于日本航空自卫队，毕业于日本防卫大学。



金景一 北京大学教授

1953年生， 毕业于中国延边大学中文系，后于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专攻国际政治并取得法学博士学位。历任日本庆应义塾大学地域研究所客座教授、韩国精神文化研究院访问研究员、韩国庆南大学极东问题研究所访问研究员、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所长、韩半岛研究中心常务副主任。现兼任北京大学外国语学院教授、韩半岛问题论坛主任、中央民族大学特聘教授、中韩交流协会理事、中国亚非发展交流协会理事。



金光億 山东大学人文社科一级教授

金光億教授曾任首尔大学社会科学学院教授，创立了现代中国学会与首尔大学中国研究所。金教授作为哈佛大学和北京大学、南京大学等中国多所高校的客座教授，讲授过中国关系。金教授现任首尔大学名誉教授，被中国教育部特聘为人文社会科学一级教授，目前任职于山东大学。金教授作为国内外著名学者，撰写了“革命与改革中的中国农民”等诸多关于中国的著作。金教授毕业于首尔大学并在英国牛津大学以中国研究被授予了社会人类学硕士与博士学位。



黄玉顺 山东大学儒学高等研究院副院长

黄玉顺，男，1957年8月生，成都人。中国社会科学院哲学博士。现任：山东“泰山学者”特聘专家、山东大学儒学高等研究院教授、副院长。兼任：国际儒学联合会理事、中华孔子学会常务理事、中国哲学史学会理事；中国社会科学院儒教研究中心学术委员、中国人民大学孔子研究院学术委员、四川大学国际儒学研究院学术委员会副主任。学术成就：创立了当代儒学主要学派“生活儒学”；提出了中国伦理学与政治哲学最新研究领域“中国正义论”。



张浩秀 忠清南道历史文化研究院院长

1956年生于京畿道始兴市。延世大学历史系毕业，延世大学史学(考古学)硕士。首尔大学考古美术史学博士，清州大学环境园艺学工学博士。历任文物厅专门委员、忠清北道文物研究院副院长、院长、韩国传统文化大学文化遗产融合研究生院客座教授，现任忠清南道历史文化研究院院长。1997年被授予国务总理奖。著书有《北方地区的考古学和文化遗产管理》(2000)、《文化遗产学概论》(2002)、《文化遗产学：理论与方法》(2008)、《文化遗产保存活用论》(2012) (all in Korean)。



郑少雄 中国社会科学院教授

郑少雄在北京大学取得了文化人类学博士学位，研究领域是中国—西藏的关系、西藏土著民族长的政治学、历史人类学与生态人类学。自2010年到2012年，作为博士后研究员在中国社会科学院社会学研究所工作，2013年后在人类学系任助理教授，现任社会文化人类学研究中心(Center for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Studies (CASS))书记。

郑博士发表了针对中国西南地区的民族关系与地区治理的最近著作

关于参加

Kangding Native Chieftains between the Han Chinese and Tibetans: A life History of the Last Mingzheng Tusi (1902-1922) (Beijing: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16)等多篇论文。最近，还在国际会议上做了以“History, reciprocity and the management of public environmental resources in Western China Mountains”(2016, Manchester)、“Grassland Policy in Contemporary Inner Mongolia and the Responses of Mongol Herdsmen: Cases of two Young Men”(2015, Toronto)、“Wula’ in Sichuan Tibetan Area: A Way of Transportation as the Representation of Morality, Aesthetics and Ethnic Identity”(2010, Seoul) 等为主题的发言。



李相均
忠清南道历史文化研究院历史博物馆高级研究员

1973年生于庆尚北道庆州。首尔大学植物生产学毕业，韩国学中央研究院人类学博士。曾任中国中央民族大学朝鲜-韩国学研究中心研究员，现为忠清南道历史文化研究院高级研究员。2015年受到忠清南道知事表彰。著书有《日治殖民地港口城市的近代重组研究》(2013)、《现代中国社会宗族传统的实践及脉络》(2013)、《首尔近郊的宗族及宗族财产交融》(2016) (all in Korean)等。



金雄西 韩国海洋学会会长，韩国海洋科学技术院 海底环境资源本部高级研究员

金雄西历任海洋资源研究本部长、高级研究本部长和第一副院长等职，在韩国海洋科学技术院(KIOST)研究海洋生物与海洋环境。现任科学技术联合研究院大学(UST)教授，兼任韩国海洋学会会长、韩国自然环境保护协会副会长、韩国海洋科学技术协议会副会长。2012年作为丽水世界博览会支援团团长、丽水世界博览会组织委员会企划顾问委员，为丽水世界博览会的申办及成功举办做出了贡献，并被授予了铜塔产业勋章。

金雄西在国际上曾任联合国国际海底管理局(ISA)法律技术委员、国际海洋矿物协会(IMMS)理事和北太平洋海洋科学组织(PICE)海洋生物委员等职，此外他还担任海上丝绸之路探险队长，搭载法国深海载人潜水艇鹦鹉螺，勘探了北东太平洋水深逾5千米的深海，也因此持有韩国人最深勘探记录。出版了100余篇与海洋有关的著作、编辑、译本和审校本，同时广泛宣传着海洋科学的重要性。

金雄西于首尔大学取得理学学士和理学硕士学位，并在美国纽约州立大学石溪分校获得理学博士学位。



崔仲基 名誉教授

崔教授历任仁荷大学西海沿岸环境研究中心所长、海洋科学技术研究所所长、海洋学系教授，现任同校名誉教授，亦是韩国国民信托共同代表和国市团(守护国立公园的市民团体)的共同代表。崔教授曾任韩国原生生物学会会长、国际黄海学会会长、韩国海洋科学技术振兴院理事，以及海洋水产部海洋政策顾问委员和韩国海洋学会会长。崔教授于2008至2009年曾任中国海洋大学访问教授及中国科学院海洋研究所访问教授、中韩海洋科学联合研究所顾问委员，并且曾是美国马里兰大学及伍兹霍尔海洋研究所客座研究员。崔教授毕业于首尔大学，并在同研究生院获得海洋学理学博士学位。



东梅贞义 世界自然保护基金日本(WWF JAPAN) 自然保护室长

1965年出生，1990年毕业于日本国际基督教大学(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教养学系理学专业后，赴英国爱丁堡大学攻读自然资源管理专业，于1991年取得硕士学位。1992年进入世界自然基金(World Wide Fund for Nature)日本后，致力于日本国内重要湿地的保护活动。自2000开始发起国际自然保护项目、黄海生态地区保护项目，一直作为项目负责人支援保护中国和韩国沿岸地区的生物多样性活动。2011年7月起担任自然保护室长。



权宰一 韩国海洋科学技术院责任研究员

1972年生，釜山大学海洋科学学士、硕士毕业后赴美国威廉玛丽学院(College of William and Mary)攻读海洋学并取得博士学位。曾在韩国海洋科学技术院作为研究员工作过很长时间，曾任韩国海洋科学共同研究中心所长，现任韩国海洋科学技术院责任研究员。



张朝晖
中国-PEMSEA海岸带可持续管理合作研究所副所长

1970年生，国家海洋局第一海洋研究所研究员，海洋生态系统评价与管理技术研究团队带头人。现任中国-PEMSEA海岸带可持续管理合作中心副主任、国家级海洋生态文明示范区评审专家委员、国家级自然保护区评审专家委员、国家级海洋特别保护区评审专家委员、联合国东北亚海洋保护区网络(UN-ESCAP NEAMPAN)指导委员会国家委员等社会和学术兼职。自2005年以来，主持各类研究项目40多项，在国内外期刊上发表论文50多篇，共出版专(译)著5部，两次获得国家海洋局海洋科学技术奖二等奖。



許再寧 大田大学土木工程系教授

許再寧是大田大学土木工程系教授，现任大田环境运动常任议长、韩国水资源公社共生合作委员会共同委员长和忠清南道政策顾问委员会委员长(兼海洋水产分科委员长)。许教授曾任韩国水资源学会大田·忠南支会会长，于1989年在日本大阪大学获得工学博士学位。



安忠荣 韩国共同成长委员会委员长

安忠荣博士现任韩国共同成长委员会委员长，同时兼任中央大学国际研究生院客座教授。安忠荣博士历任Kotra外国人投资申诉专员(06.05-14.07)、总统直属规制改革委员会民间委员长(10.06-12.06)、总统直属规制改革委员会委员(09.01-10.06)、总统顾问国家竞争力强化委员会委员(08.04-11.05)、中央大学政经学院经济学教授(1974-2006)、对外经济政策研究院(KIEP)院长(02.01-05.01)等公私要职。主要著书和论文《现代东亚经济论》(日文版)，日本岩波书店(2000)(in Japanese)、《现代韩国☒东亚经济论》，博英社(2001)

(in Korean)、《现代东亚经济论》(中文版)，北京大学出版社(2004)等曾刊载在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Asian Journal of Economics, Global Asia等世界重量级学术杂志上。



金道薰 西江大学教授，前产业研究院院长

金道薰于2016年秋季学期开始在西江大学国际研究生院任教, 授课科目以”东亚产业系统”为主题. 此前在国家政策研究机构-产业研究院工作积累了丰富的经验. 1979年于首尔大学毕业后直接进入产业研究院工作, 期间历任动向分析室长、产业政策室长、国际产业合作室长、研究本部长等职，于2013年5月至2016年5月担任了产业研究院院长。在产业研究院任职期间，他也广泛积累了海外研修、国际组织任职等经验。1985-1990年赴法国巴黎第一大学留学取得了经济学博士学位，1997年9月至1999年9月期间在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贸易国担任首席行政官。2011年8月至2012年8月期间在美国华盛顿大学作为访问学者活动。在产业研究院任职期间，还在知识经济部(部长顾问)、外交通商部(FTA 民间顾问委员)、公平交易委员会(市场结构分析委员会委员长)、关税厅(关税审议委员会)等政府机构作为顾问活动。最近，还作为共同成长委员会委员、财政政策顾问委员会委员进行活动。研究和授课的专业领域有通商政策(FTA，WTO等)、产业政策、规章改革等等。曾将韩国的产业发展经验介绍给发展中国家并进行了各种顾问活动。此外，还曾在韩国规章学会和韩国欧盟学会(EU学会)作为会长进行了活动。与这些专业领域有关的著作主要有《韩国经济60年历史-产业》、《韩美・韩-欧盟FTA的发酵及制造业的应对》、《韩中日FTA带来的各产业影响分析》、《经济开发战略合作项目的开发模式》、Final Report of the Policy Consulting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Algeria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lgeria、《韩中FTA签订带来的制造业部门的各产业效应分析》、《韩日FTA签订时制造业领域的进出口效应分析》等。



赵玉璞 中国山东大学东北亚研究所所长

1964年生， 山东大学经济学学士、硕士毕业。曾是朝鲜金日成综合大学访问研究员，并于2004年在韩国湖西大学取得经济学博士学位。曾任山东大学威海校区讲师、威海市标准化研究所所长、威海经济技术开发区厅副厅长，2004年至今任山东大学威海校区副校长及教授。同时兼任山东大学东北亚研究中心主任。主要研究领域是韩半岛政治经济。



李承新 对外经济政策研究院 中国组组长

李承新博士曾任韩国贸易协会国际贸易研究院首席研究员，自2012年7月始两年间任对外经济政策研究院(KIEP)北京事务所所长，现为对外经济政策研究院中国组组长。近期研究成果有“新常态下提高中小企业对外竞争力的政策课题研究：以韩国和台湾为中心(研究负责人)”和“中速成长的中国经济与中韩经济合作(共著)”(all in Korean)等。



李章雨 庆北大学经营系教授

毕业于首尔大学经营系， 在韩国科学技术院取得了经营科学系硕士和博士学位。现任庆北大学经营学教授，并兼任电子元件研究院理事长、共同成长委员会委员、韩国文化产业论坛共同代表等职。曾任韩国经营学会会长、创造经济研究院院长、总统直属未来企划委员、韩国中小企业学会会长、战略经营学会会长、国民经济顾问会委员(共同经济分科)、未来创造科学部创造经济顾问委员等职。2001年获得美国 Journal of Management最佳论文奖，在国内外重量级学会杂志上发表过60余篇论文(经营战略、风险创业及中小企业经营等)。任职创造经济研究院院长期间，提出了“1人创造企业”、“青年创职”、“创意性人才伙伴制度”等有关于雇佣创意的新政策。出版著作有《经营》、《风险经营》、《小巨人：大韩民国的强小企业》、《首创经营》(all in Korean)等。



高定敏 弘益大学文化艺术MBA教授

现兼任世宗学堂财团理事和韩国文化观光研究院理事，并在弘益大学任文化艺术MBA教授。1986年至2009年曾任三星经济研究院首席研究员，电影振兴委员会副委员长。著作有《文化内容经营战略》(2007)、《文化生产的前卫》、《创造地球》(2009)、《永恒韩流》(2012)(all in Korean) 等。高教授毕业于延世大学经营学系，后于成均馆大学经营学研究生院获得博士学位，美国匹兹堡大学工商管理研究生院进修了市场营销课程。



宋远方 中国人民大学教授

1957年生，中国人民大学信息学专业毕业，美国俄克拉荷马大学MBA硕士、中国人民大学商学院博士。1985年至今任教于中国人民大学商学院，期间研究方向以物流管理，SCM供应链管理，企业战略与信息化为主。主要著作有《医药物流与供应链管理》、《供应链管理与信息技术》、《电子商务》、《管理信息系统》、《管理信息系统案例集》。现兼任中国物流学会副会长、中国教育部高等学校电子商务专业教学指导委员会委员、中国人民大学SCM供应链战略管理研究中心主任、中国人民大学中小企业研究所副主任等职。



大谷新太郎 阪南大学国际观光学教授

富山县出身，立教大学取得观光学研究博士。作为阪南大学国际观光学副教授，教授“观光市场营销论”、“观光信息论”，主要研究领域是观光现状与信息技术的关系、旅游管理、市场营销。主要著作有《IT革命与旅游业》、《观光实务手册》(all in Japanese)。

关于参加



金瑛燮 成均馆大学设计研究院建筑学系教授

金瑛燮代表于成均馆大学取得学士学位后于1982年创立了建筑文化设计研究所，并到2007年一直经营了(株)金瑛燮+建筑文化建筑师事务所。金瑛燮有着意大利、德国、日本、俄罗斯、中国、印度、乌兹别克斯坦、阿塞拜疆等诸多海外研讨会发表及共同作品展示经验，曾作为建筑家受邀参加东风2000主题的日本东京沿海第二中心新城市企划、新日本行政首都企划及中国沈阳的儿童乐园企划。此外，曾受邀在东京大学、格拉纳达大学等海外著名大学进行演讲，自2007年3月开始受聘成为成均馆大学建筑学系客座教授后，2008年开始历任成大建筑学系教授、建筑设计研究院教授及成均建筑城市设计院((SKAi)院长。社会活动中，曾任以“21世纪崭新的都市与居住”为主题的第四届 IAA国际研讨会首尔大会组织委员长、汉江文艺复兴总策划、首尔城市设计论坛委员会委员长、首尔公共设计委员会委员长等职，并曾作为第一届国家建筑政策委员会委员、行政改革市民联合共同代表、行政安全部共同设计论坛委员长、世宗促进委员会委员、济州岛景观委员会委员长、首尔市民设计委员会城市空间环境设计分科委员长进行过活动，现兼任忠清南道经济蓝图委员会定居环境分科委员长、安眠岛开发总企划委员会委员长及江陵市奥林匹克准备连带城市中心重建共同委员长职。建筑相关的成就有：包含金寿根建筑奖、大韩民国环境文化大奖、建筑文化大奖等诸多建筑设计获奖作品在内的作品集被2003年澳洲 Images Publishing评选为世界百名大建筑家中的第53位。此外，在世界建筑家1000位中被列为大建筑家，于2007年被选定收录在日本 Art Design出版社出版的“世界51位建筑家的想法及作品(World Architects 51 Concepts&Works)”书中。



姜贤秀 忠清南道研究院院长

姜贤秀历任总统顾问国家均衡发展委员会顾问委员、韩国空间环境学会会长等职，现任为忠清南道研究院院长。曾任英国牛津大学和美国麻省理工大学客座研究员及中部大学城市行政学系教授，现任忠清南道研究院院长。主要著作有《现代城市理论的转换》、《新地区发展论》、《地区均衡发展论的重构》、《城市的权利》(all in Korean)等。毕业于首尔大学工学院并获得同校城市规划学硕士和行政学博士学位。



王丽 中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国土开发与地区经济研究所助理研究员

主要研究方向为可持续发展及区域发展。近年来，先后参与国家部委及地方委托的各类研究课题50余项。在学术刊物上发表论文30余篇。出版独著1部、合著1部。主要著作有：《京津冀地区资源开发利用与环境保护研究》、《 资源环境视角下的中国城市潜力研究 》、《我国陆海统筹发展研究》等等。



金善泰 大田大学环境工程系教授

金善泰是大田大学环境工程系教授、环境问题研究所所长及忠清南道绿色成长委员会和绿色成长论坛委员长。此外，还兼任大田忠清南道市民环境研究所理事长和大田环境教育网络、韩国环境网络共同代表。曾任大田大学产学合作团团长和大田环境运动联合共同议长。毕业于首尔大学农化学系，经同校环境研究生院取得硕士学位后于东京大学获得环境工程学博士学位。



俞湖
环境部海外合作负责官

他在美国 纽约大学获得了研究生院生物学系硕士，现在担任环境部科长。 俞科长曾经过环境部国际合作管室国外合作担当，环境部国际合作管室地球环境担当及环境部水环境政策局水生态保存科长。



尹敏鎬
日本国际金融信息中心亚洲部特别研究员

尹敏鎬历任世界银行研究员及东西证券经济研究所首席研究员、日本国际金融中心特别研究员、现任美洲开发银行亚洲事务所对外总监管、对外总监顾问。曾任早稻田大学日韩国际研究所客座研究员、日本财务省东北亚研究委员及早稻田大学和丽泽大学讲师。毕业于汉阳工大工业化学系，并曾进修于日本东京工业大学研究生院、美国乔治·华盛顿大学研究生院，并获得东京经济大学研究生院工商管理学博士学位。



朴在默 忠南大学社会学系名誉教授

首尔大学社会学系学士、硕士及博士毕业，1981年任忠南大学社会学系教授至2015年8月退休，现任同校名誉教授。朴在默最初很关注发展社会学，但在1990年开始关注环境与社会的关系，此后主要针对环境社会学领域进行授课和研究，还发表了关于地区社会、市民团体及市民运动的论文。最近发表的主要著作有：《大田社会论》(共著，2013年，大田发展研究院)、《韩国社会学的未来：社会学的危机诊断与未来展望》(共著，2015年，nanam)、《环境社会学：自然与社会的相遇》(共著，2015年，hanul)(all in Korean)等。历任了社会学领域的主要学会韩国社会学会(2011年)、韩国环境社会学会(2004年至2008年)、韩国NGO学会(2007年至2009年)等机构的会长。学术界以外，还活动于国务总理室、国土交通部等中央政府和大田广域市、忠清南道等自治体的各种委员会，2015年起任职市民团体环境运动联合的共同代表。



劉容九 忠南高科技园政策企划团长

在忠北大学获得物理学理学博士学位。经过英国 剑桥大学卡文迪什实验室研究院的研究员，韩国电子通信研究所高级研究员， 忠清道地区事业评价员 领航工业室长，现在以 忠清南道产业技术院 政策规划团长。



内田裕久 东海大学核工程系教授

1949年生。1977年于德国斯图加特大学取得博士学位。1975年至1981年任马克斯-普朗克金属研究所(Max-Planck-Institute for Metals Research)研究员。1981年至今任日本东海大学工学院核工程系及战略和平国际研究所(SPIRIT)教授。日本 KSP Inc.的代表理事、会长。



金俊泰 公州大学教授

金俊泰在澳大利啊新南威尔士大学专业建筑环境工程获得了博士学位，从1996年属于国立公州大学建筑学部。他是关于建筑上利用太阳能及建筑保存能源的专家，在韩国能源技术研究院进行了研究。曾经过韩国生态环境建筑学会副会长，现在担任韩国太阳能学会长。他还有代表韩国参加国际能源署(IEA),下属的太阳能冷暖气计划(SHC),建筑能源计划(EBC)， 太阳光发工程计划(PVPS) 等国际合作事业。主要研究领域：对环境友善零能耗建筑，建筑物一体形太阳光发展工程(BIPV)， 太阳光热能(PVT) 符合工程，高效率绝热材料建筑应用技术 等。现在以韩国能源公团RPS 技术管理委员，调达厅 设计评价委员，忠清南道教育厅设计咨询委员，大田是建筑委员，教育厅建住委员活动。



任哲鎬
现代汽车高级研究员

任哲鎬现任现代汽车燃料电池技术开发组部长，于2007年开发了燃料电池系统。1992-1996年设计开发变速器、1996-2001年设计开发了新能源汽车驱动系。此后至2006年负责了新能源汽车的战略企划。



盧相梁 能源管理公团新再生能源中心所长

1957年出生。毕业于全北大学 机械工程学，从1983开始到现在在能源管理公团工作。
主要社会活动：效率技术处 效率2组长， 光州全罗南道分社 技术部长，资金运用处 资金评审组长，政策研究组长，新再生能源中心 新再生能源产业培养室长，庆尚南道地区本部长，策划调整室长， 还有2015年终有上任新再生能源中心所长。2005年以电力供需有功者受到了产业资源部长官表彰，2014年以节省能源受了总统表彰。



安正善 忠清南道女性政策开发院长

安正善现任忠南女性政策开发院第6代院长、公州大学护理学教授，曾任同校学生处处长和同校护理保健大学学长，现为山林厅自我评价委员。而且，还曾任国家人权委员会性差别调整委员、大田广域市女性政策咨询官、女性部男女差别改善委员会委员等政府职位及大田环境运动联合共同议长、大田参与自治市民连带共同议长等职，主要研究有《实施性别主流化的管理构筑方案(韩国数字政策学会，2013)》、《地方政府的性别影响评估指南(韩国公共行政研究院女性政策研究所，2012)》、《地区社会护理总论(玄文社，2012)》(all in Korean)等。



李娜荣 中央大学社会学系教授

李娜荣教授毕业于延世大学英文系，于美国马里兰大学女性学系取得硕士和博士学位，现任中央大学社会学系教授，曾任美国乔治梅森大学女性学系教授。李博士现还兼任韩国女性学会《韩国女性学》编辑委员长、韩国质的研究学会理事、正义记忆财团理事、韩国女性电话监查、共创和平女性会理事、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附设战争与女性人权博物馆运营委员、首尔市性别平等委员会政策分科委员长、首尔市学术劳务审查委员会委员等职。



蒋永萍 中国妇联旗下女性研究所名誉研究员

全国妇联妇女研究所研究员。兼任中华女子学院兼职教授、中国婚姻家庭研究会常务理事、副秘书长，中国劳动学会、中国家庭教育学会常务理事，中国妇女研究会、中国社会学学会理事，国务院妇儿工委专家组成员。主要研究方向是妇女地位和性别平等测量与评估，妇女状况的调查与分析，妇女劳动就业，社会性别与公共政策。撰写并主编的学术著作有《新时期中国妇女社会地位调查研究》《社会转型中的中国妇女社会地位》《社会转型中城镇妇女的工作和家庭》《中国性别平等与妇女发展报告》等十数部。先后主持参与了国家社会科学基金资助、全国妇联和国家统计局联合组织的“第一、二、三期中国妇女社会地位调查研究”课题研究、国务院妇女工委“2011-2020年中国妇女发展纲要框架与专家建议稿”、全国妇联、科技部“女性高层人才成长发展状况与政策推动”、“性别平等与妇女发展指标研究与应用”等研究课题和项目。是国家统计局与联合国人口基金“性别统计发展与改进”项目的专家顾问。



千田有纪 日本武蔵大学社会学系教授

东京大学文学部社会学系毕业后，于同大学研究生院取得教育学研究系教育学硕士学位、社会系研究学硕士及博士学位。经东京外国语大学外国语学院，现任教于武蔵大学社会学系。主要著作有《日本型近代家族-从何而来向何而去》、《女性学/男性学》(all in Japanese)等。



金良姬 Gender & Leadership代表

金良姬现任 Gender & Leadership代表，亦是女性环境连带的共同代表。 同时兼任女性劳动力活用与男女平等实践TF顾问、女性人才学会教授、女性家族部自我评价委员、女性政策顾问委员会、忠南两性平等蓝图委员会委员和京畿道性别平等委员会委员。金良姬代表于芝加哥洛约拉大学取得了社会心理学博士学位，历任韩国女性政策研究院高级研究员、GM研究本部长、平等政策研究室长等，还曾任淑明女子大学和天主教大学兼职教授，以及美国北卡罗来纳大学客座教授。主要有《女性，领导及领导力(三星经济研究所)》、《为构建可持续和性别认知治理的环境改革课题(环境部)》、《企业内男女管理人的比较研究(韩国女性政策研究院)》、《关于性别主流化制度之有效安顿的研究(韩国女性政策研究院)》(all in Korean)等多篇著作。

关于参加



姜明求 首尔大学亚洲研究所所长

姜明求所长毕业于汉阳大学新闻系，后取得了首尔大学新闻系硕士学位和美国爱荷华大学舆论学硕士及博士学位。姜所长现任首尔大学亚洲研究所所长，自1987年起在首尔大学舆论信息学系教授东亚媒体论、批判型沟通、质的研究方法论和媒体文化研究等课程。还曾任日本东京大学和中国传媒大学特聘教授，并在过去六年期间于中国清华大学和北京大学授课。姜明求所长还任世界文化学会亚洲地区代表理事、全球互联网管理共同代表，为构建亚洲文化研究网做出了贡献。他还作为首尔大学基础教育院长及自由专业学部推进团长执行了教授学习开发中心等业务，设立了首尔大学写作中心并将科学技术写作教育制度化。基于为大学教育的全球化与革新付出的功劳，于2014年荣获“首尔大学教育奖”。过去几年间，他对冷战与电视广播的文化史、解放后韩国消费文化的形成、东亚家庭关系重现的比较、知识生产的殖民性等主题进行了研究探讨。著书有《韩国新闻业理论》、《消费大众文化与后现代主义》、《家庭与媒体》(共著)、《浅谈中日韩青年》(共编)等，同时还在国内外学术期刊刊载了“韩国舆论的结构变动与舆论战争”、“爱国热望与崇高的科学”(共著)、“文化的冷战与韩国首次电视HLKZ”(共著)、(all in Korean) “Are our families still Confucian? Representations of family in East Asian television dramas”(共著)(in English)、“中国观众的电视剧消费取向指导”(共著)和“要培养什么样的学者与教授? —大学评价与知识生产” (all in Korean) 等多篇论文。



金洪中
首尔大学社会学系教授

首尔大学社会学学士、硕士毕业，法国巴黎社会科学高等研究院(EHESS)博士。现任首尔大学社会学教授，专业为社会理论与文化社会学，最近致力于研究东亚青年的各种文化现象及他们梦想的能力。



寺地幹人 茨城大学人文学系教授

寺地幹人为日本茨城大学教授。专攻社会学，也对青年，劳动，教育领域有所研究。最近著书有“The Transformation of Youth Attitudes to Economic Success in Japan”(2016年, ISBN 9784769915775, 日语撰写)和“居住于大都市的20代的职业意识分析” (2016年韩译, ISBN 9788963472454)。



王增勇
台湾国立政治大学社会事業研究所副教授

王增勇教授是台湾国立政治大学社会事業研究所长兼副教授。他在美国哥伦比亚大学社会事获得硕士学位，加拿大多伦多大学获得博士学位。他在高龄化，LGBT, 原住民 人权方面积极地进行消费者运动。从2008年到2012年为TAFC(Taiwan Association of Family Caregivers)董事长在任， 从2009年到2012年为Journal of Taiwan Quarterly in Social Sciences 总编室主任在任。



金艾瓘 光云大学言论信息学教授

金艾瓘教授曾修学于首尔大学舆论信息学系和伦敦大学金史密斯学院，现任职光云大学媒体影像学系教授。金教授主要研究和教授现代媒体环境中的沟通文化与社会现象，尤其是主体的伦理学和感受性的社会实践。著作有《语言的表情》、《我们-人类：关于生命与自然的融合》(all in Korean)等共著与论文。



李在恩 忠北大学教授

于延世大学获得行政学博士学位，2000年开始任教于忠北大学行政学系，专业领域有危机管理、灾难管理、组织理论。历任国家危机管理学会会长和忠北大学国家危机管理研究所所长，现兼任韩国政策论坛会长、 ISCEM(International Society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国际危机管理学会)共同会长、危机管理理论与实践代表、安全忠南蓝图委员会委员长。

日本語

节目

日	時間	プログラム	
2016年 11月 3日 (木)	09:00-09:40	登録	
	09:40-10:30	開会式	開会の辞：安熙正(忠清南道知事) 祝　　辞：尹錫禹 (忠清南道道議会議長), 林聖男 (外交部第1次官) 歓迎の辞：吳施德(公州市長) 基調演説：**「平和オデュッセイアからみた環黄海平和共同体」** 洪錫炫(中央日報会長)
	10:30-11:30	特別 セッション	**「環黄海平和共同体の構想」** 司会者：文正仁(延世大学名誉特任教授) 発表者：・**「環黄海平和共同体構想-韓国の見方で」** 金星煥 (漢陽大学特訓教授・前韓国外交通商部長官) ・**「環黄海平和共同体構想-日本の見方で」** 森本敏 (拓殖大学総長・元日本防衛大臣) ・**「環黄海平和共同体構想-中国の見方で」** 金景一 (北京大学校教授)
	12:00-13:00	昼食	
	13:00-14:30	本セッション	**平和1「アジア精神文化に基づく人文交流ネットワークの構築」** 司会者：金光億 (山東大学人文社会大1級教授) 発表者：・**「生活儒教価値の共有とアジア平和」** 黄玉順 (山東大学儒学高等研究員副院長) ・**「環黄海における儒教文化の交流策」** 張浩秀 (忠清南道歴史文化研究院院長) ・**「忠南-山東省間の儒教文化交流協力の展望と考察」** 鄭少雄 (中国社会科学院教授) ・**「忠南-山東儒教文化交流の実践策模索」** 李相均 (忠清南道歴史文化研究院先任研究員)
			平和2「黄海の平和的利用に向けた環黄海圏海洋における協力拡大-海洋環境を中心に」 司会者：金雄西 (韓国海洋学会会長・韓国海洋科学技術院責任研究員) 発表者：・**「黄海環境研究における問題点」** 崔仲基 (仁荷大学名誉教授・元韓国海洋学会会長) ・**「海洋環境中心の黄海地域における国際協力」** 東梅貞義 (公益財団法人WWFジャパン自然保護室長) ・**「中韓の黄海共同研究における過去、現在、未来」** 權宰一 (韓国海洋科学技術院責任研究員) ・**「我ら共同の黄海：海洋生態環境保護に関する深層討論と国際協力の重要性」** 張朝晖 (中国-PEMSEA 持続可能沿岸管理協力研究所副会長) 討論者：許再寧 (大田大学土木工学科教授)
	14:30-14:50	休憩	
	14:50-16:20	本セッション	**繁栄1「中韓FTAと忠清南道の中小企業のグローバル化」** 司会者：安忠栄 (同伴成長委員会委員長) 発表者：金道薫 (西江大学校教授・元産業研究院長院長) 赵玉璞 (中国山東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長) 李承新 (対外経済政策研究院・中国チーム長)
			繁栄2「環黄海地域における文化観光産業の育成」 司会者：李章雨 (慶北大学経営学部教授) 発表者：・**「泰安郡を中心とした文化観光資源の活用戦略と韓流3.0」** 高定敏 (弘益大学文化芸術MBA教授) ・**「供給チェーンネットワークはどのように中小企業の融資能力を強化するのか：供給チェーン金融の視点から」** 宋远方 (中国人民大学教授) ・**「日韓協力に基づいた環黄海圏文化観光資源の活用策」** 大谷新太郎 (阪南大学国際観光学科教授) 討論者：金瑛燮 (成均館大デザイン大学院建築学科教授)

● **日時** 2016年11月3日(木) - 4日(金)
● **会場** 忠清南道公州市アートセンターコマ

日	時間	プログラム	
	16:20–16:40	休憩	
	16:40–18:10	本セッション	**共生1「環黄海地域における大気汚染の実態と改善に向けた地方政府の役割」** 司会者: 康賢秀 (忠南研究院院長) 発表者: ・**「環黄海地区における大気汚染の基本構造及び合作管理策の探求」** 王麗 (中国国家発展改革委員会・国土研究開発及び地区経済研究所研究員) ・**「忠清南道地域における大気汚染の実態と改善に向けた地方政府の役割」** 金善泰 (大田大学環境工学科教授) ・**「北東アジア地域環境協力の現状」** 兪湖 (環境部海外協力担当官) ・**「未来における日中韓の環境技術協力: 進化する高効率技術と環境改善戦略」** 尹敏鎬 (日本国際金融情報センターアジア部特別研究員) 討論者: 朴在默 (忠南大学社会学科名誉教授)
			共生2「エネルギー政策の転換に向けた地方政府の挑戦と課題」 司会者: 劉容九 (忠南テクノパーク政策企画団長) 発表者: ・**「水素エネルギー社会の実現に向けた公共及び民間の役割」** 内田裕久 (東海大学原子力工学科教授) ・**「忠南太陽光産業の政策的方向」** 金俊泰 (公州大学教授) ・**「現代自動車の環境配慮型車両の開発現況」** 任哲鎬 (現代自動車責任研究員) 討論者: 盧相梁 (エネルギー管理公団・新再生エネルギーセンター所長)
2016年 11月 4日 (周五)	09:30–11:00	特別セッション	**「東アジアの持続可能な発展に向けたジェンダービジョン2030」** 司会者: 安正善 (忠南女性政策開発院院長) 発表者: ・**「韓国の持続可能な発展に向けたジェンダー議題及び政策課題」** 李娜栄 (中央大学社会学科教授) ・**「ジェンダー平等の基本国策及び中国特有のジェンダー主流化の推進」** 蒋永萍 (全国婦女連合会傘下女性研究所名誉研究員) ・**「安倍政権の「一億総活躍社会」と女性政策」** 千田有紀 (日本武蔵大学社会学部教授) 討論者: 金良姬 (ジェンダー&リーダーシップ代表)
			「東アジア青年の未来」 司会者: 姜明求 (ソウル大学アジア研究所所長) 発表者: ・**「韓国青年の夢の資本」** 金洪中 (ソウル大学社会学科教授) ・**「日本の若者の20年間の変化および不変: 再帰性と彼ら彼女らの前途」** 寺地幹人 (茨城大学人文学部教授) ・**「本土との繋がりによる成長: 未来を探す台湾青年」** 王増勇 (台湾国立政治大学社会事業研究所副教授) 討論者: 金艾珮 (光云大学言論情報学科教授)
	11:00–11:20	休憩	
	11:20–12:20	環黄海自治団体ラウンド	**「地域別に脆弱な自然災害の類型と対応(災害管理システム)」** 司会者: 李在恩 (忠北大学校教授)
	12:20–13:30	閉会及び昼食	

開会の辞

道民の皆様、そして国内外からのご来賓の皆様、平和と繁栄の環黄海フォーラムへようこそ。ご多忙の中、環黄海フォーラムにご参加いただき、厚くお礼申し上げます。

忠清南道は去年アジア平和共同体に向けた第一歩として「第1回環黄海フォーラム」を成功裏に開催し、今年第2回目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本フォーラムを通して環黄海圏を平和の中心に、黄海をアジアの地中海にするための交流や協力方策を探る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

20世紀を通じて世界の秩序は適者生存と弱肉強食の論理によって牛耳られました。世界全体が帝国主義、国家主義、民族主義によって互いを敵対的の対立関係の中に陥らせていました。その秩序のなか、弱小国は他国の侵略を受けて植民地に転落し、弱小国の国民は人間としての権利さえ踏みにじられました。この東アジアも20世紀の侵略と戦争が混ざった不幸な歴史を経験しています。

我々は20世紀の不幸な歴史を繰り返してはなりません。しかし、アジア諸国の間には歴史の傷と葛藤が未だに多く残っています。植民地の傷や戦争の傷がまだ癒えきらない時代を生きているのです。環黄海地域はダイナミックに発展していますが、今のような心細い平和状態だと、持続的な繁栄は期待できません。20世紀の古い価値と葛藤の構造がこのまま残っていては、どの国も新たな繁栄を成し遂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

如何なる国家であれ、外交と安保の中核目標は平和であってしかるべきです。国家権力による侵略戦争によって富を蓄積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時代は幕を下ろしました。伝統的な富国強兵の軍事主義路線や貿易障壁を高めるマーカンティリズム政策では、これ以上平和と繁栄を守ることはできません。平凡な市民たちの命と財産を保護し、経済的繁栄の機会を提供するために国家は存在します。戦争は平凡な市民たちにとって災いです。太平洋戦争当時に侵略にさらされた国々のみならず、侵略国である日本の国民も飢餓と病気に苦しみ、国家という名のもとで犠牲されました。20世紀のような方式で自国の繁栄を図るという考え方はもはや妄想となります。この地の主人である市民たちの安全で豊かな暮らしは、ひたすら平和を通じてのみ守ることができます。

環黄海地域を平和に管理することは東アジア諸国の義務であると同時に、繁栄への道です。環黄海圏が世界中の投資家らにとって魅力的な投資地域になるためには、最も安全な地域、最も成熟したデモクラシー、最も自由な通商が実現できる地域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一世紀も前に安重根義士は平和への道のりを提示しました。私たちが東洋平和思想に基づいて団結し、主導的にアジアの共栄と平和を導くことができてこそ、私たちに繁栄の機会が訪れると言いました。これこそ私たちに与えられた時代の召命であるのです。

黄海をめぐる葛藤を解消し、環黄海をアジアの中心、カネとヒトが自由に行き来する豊饒と繁栄の「アジアの地中海」にするための積極的な論議が必要な時にきています。経済、通商、環境など一国で解決しにくい多様な懸案について、アジア諸国が一堂に会してその発展策を議論することが必要です。「兄弟愛」を培い、交流と協力を高める多様で多くの試みが切実です。忠清南道の環黄海フォーラムはその先頭に立ちたいと思います。

本フォーラムにご参加された国内外のリーダーたちが「アジアの繁栄と共存への道」に歩き出すための「忠清南道の役割」について、素敵な洞察と叡智を提示し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さらに、「アジア平和共同体」の構築に向けたビジョンや課題に対する論議を通し、黄海を取り囲んでいるアジア諸国が互いに共生し、また協力して発展することのできる道を切り開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本日、百済の精神が息づく古都公州において、将来環黄海水域の繁栄と共生、そして平和を論ずるこの場にご参加いただいた皆様に改めて深く御礼申し上げます。

2016年 11月 3日

忠青南道知事

祝辞

こんにちは。

「アジアの繁栄と共存への道」というテーマで開かれる『第2回環黄海フォーラム』が、民族の霊山である鶏龍山と誇らしき百済遺産が息づくここ公州市で開催されますことは大変意義深く、210万忠南道民とともに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

去年に続き、第2回フォーラムの開催に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忠清南道知事の安熙正様、並びに関係者の方々の情熱とご努力に感謝申し上げます。

また、お忙しい中を本フォーラムのためにお運びいただきました多くの方々に御礼申し上げます。

「環黄海」に注目する理由は、わが忠清南道の未来であると同時に、北東アジアを中心とするアジアの未来がかかっているためでしょう。特に、日中韓三国は東アジアの歴史を通じて競合者であり、そして協力者でした。

しかし、最近、国家間の軍事・政治・経済的な利害関係が絡み、共同繁栄に向けた取り組みは遅々として進まないのが現状です。このような時期に東アジアの各地方政府が主導的に友好関係の強化に努め、持続可能な未来成長について考えることの意味は非常に大きいと思います。

もはや環黄海圏は金融・技術・インフラなどグローバル経済の核心として浮上しています。そのため、環黄海圏の国々は相互競争ではなく、協力を重視する上、各国の地方政府は互いに分野別の強みと弱みがある故に、相互協力を強固なものにしていけば、一緒に成長す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ます。

今後、忠青南道議会でもアジア地方政府間の共同繁栄に向けた歩みに対し、積極的な関心と支援を惜しみません。

どうか、アジアの「平和」と「繁栄」、「共生」をさぐる「環黄海フォーラム」が益々発展を遂げ、東アジアの繁栄を約束するきっかけとして位置づけられます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6年 11月 3日

忠青南道議会議長

祝辞

第2回環黄海フォーラムが開催されますことをお慶び申し上げます。

去年11月に「環黄海フォーラム」が発足してから、今年再び「アジアの繁栄と共存への道」というテーマで、日中韓三国の専門家たちが一堂に会し、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共存の方法について議論し合う「第2回環黄海フォーラム」が開催されます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ものです。

本日、本フォーラムが忠清南道の公州で開催されることは、公州が百済の古都として黄海を核とする交流と協力の中心に存在してきたという点で意義深いです。黄海は、昔から黄海を取り囲んでいる周辺国にとって、交流の通路として繁栄と共存へ進む道として利用されて来ました。長年の歴史のなかで、環黄海圏は経済的、政治的に重要な地域として成長しており、環黄海圏における主要国である日中韓三国は人口とGDPで世界の15分の1、貿易額は6分の1を占めており、この三国間の協力こそ東アジア地域を超えて世界全体の平和と繁栄に寄与すると言えます。

韓国政府はこれまで東アジア主要国である日中韓三国における協力の強化に向けて弛まぬ努力を重ねてまいりました。韓国は2011年9月に設立された三国による協力事務局をソウルに設け、北東アジアの揺れ動く情勢のために3年半も中止されていた日中韓三国の首脳会議を去年11月にソウルで開催し、三国協力の体制を取り戻すことにも貢献しています。これを土台に、この8月には東京において日中韓外相会議が成功裏に開催され、今、日中韓三国は21の長官級協議、60余の実務級協議を運営するなど活発な協力活動に取り組んでいます。

北東アジア地域には北朝鮮の核挑発問題などをはじめ、様々な挑戦要因をも共存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挑戦を賢明に乗り越え、協力の潜在力を実現していくことこそ、大きくは北東アジア地域、小さくは同フォーラムで焦点となる環黄海地域が抱える課題であると思われます。そのような意味で、本日のフォーラムで、△東アジア平和共同体の構想、△海洋協力の拡大、△経済及び文化交流の向上策などが論議されますことは、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安定を模索する上で非常に時宜にかなったものと思います。

古代ローマ時代に、地中海が平和と繁栄の通路と舞台になっていたように、東アジア諸国が黄海を中心に経済・社会・文化の各分野において協力を強めていくならば、21世紀は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さらに共存の時代になると確信いたします。

改めて、環黄海フォーラムを主催されました忠清南道及び東アジア財団、カイストゥのムンスル未来戦略大学院に深くお礼申し上げ、本フォーラムが実り多いものとなりますよう祈念いたします。

2016年 11月 3日

大韓民国外交部 第1次官　林聖男

歓迎のご挨拶

国内からのご来賓の皆様、世界遺産都市公州へようこそ。

「アジアの繁栄と共存への道」というテーマで行われます「第2回環黄海フォーラム」の開催を深くお慶び申し上げ、本フォーラムの公州開催に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忠清南道知事の安熙正様と関係者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

我々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通してリアルタイムで世界中の人々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時代を生き、世界各国の経済と文化は互いに影響し合いながら変化し進化しています。

グローバル化は我々にとって新たな可能性やチャンスを与える一方、多様かつ複雑な問題と葛藤をもたらしています。

これを効果的に解決するためには国家間の協力はむろん、各国各地方間においても緊密に協力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特に、黄海を共有している各地方は文化的な共通点が多い地域であり、昔から黄海を通して互いに文化交流をし、発展してきました。

公州で開催されます「環黄海フォーラム」が、このような歴史的意味を顧み、環黄海地域における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公州は、約1500年前に燦爛たる百済文化の中心地として、百済の多様な歴史文化遺産が息づく都市です。特に百済遺跡の公州「公山城」と「宋山里古墳群」は去年ユネスコの世界遺産に登録され、その価値が世界的に認められました。

公州市は先人たちの立派な文化遺産を継承・発展させるために多大な努力を傾けており、次の世代に引き継ぐ新しい文化遺産づくりに取り組んでいます。さらに、国際交流も積極的に推進しております。

本フォーラムが私たちに希望と自信を持たせ、交流と協力を促す貴重な場に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改めて、本フォーラムの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アジアを越えて人類発展の新たな力となる「環黄海フォーラム」に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6年 11月 3日

公州市長

参加者の紹介



洪錫炫 中央日報・JTBC会長

中央日報とJTBCの会長で、ソウル大学校電気工学科学士・スタンフォード大学院産業工学修士・同大学院経済学博士号をそれぞれ取得した。
世界銀行イコノミスト・財務長官秘書官・大統領秘書室長補佐官・韓国開発研究院研究委員・サムソンコーニング常務・専務・副社長を務めた・1999年に中央日報発行人・印刷人・社長職を経て、2006年中央日報会長・2011年JTBC会長にそれぞれ就任した。世界新聞協会会長・第35代韓国新聞協会長・世界文化オープン組織委員会委員長・第20代駐米韓国大使・三極委員会アジア太平洋委員会副会長・アジア財団理事・書道振興委員会委員長・戦略国際問題研究所理事・韓国棋院総裁・チャタムハウス顧問などあらゆる分野で活躍した。
太平洋世紀研究所で「PCIビルディングブリッジズアワード（個人）」を、女性人材を養成した功労で延世大男女共学50周年記念特別功労賞を、1984年には大統領表彰を受けた。また、中央日報会長とJTBC会長を務めている最中にキメップ大学国際関係学・世宗大学公共政策学・POSTEC電子電気工学科にてそれぞれ名誉博士号を取得した。



文正仁 延世大学名誉特任教授

延世大学名誉特任教授であり、英文季刊誌の<グローバルアジア>の編集人。アメリカ・カリフォルニア大学サンディエゴ校グローバル政策戦略大学院名誉研究員。 延世大学国際学大学院院長、「大統領直属北東亜時代委員会」委員長(長官級)、韓国外交通商部・国際安保大使を歴任した。これまで40以上の著書を執筆し、各種学術誌及び研究書に300編以上の論文と論評を投稿。



金成昱 元外交通商部長官

職業外交官出身として、2010年10月から2013年3月まで韓国の外交通商部長官を歴任。
2012年7月には国連の潘基文事務総長が設けた「Post-2015 開発アジェンダの策定に向けた国連高位級パネル」の一人に任命され、2015年以降の開発協力目標を作成するための論議に参加した。外交部を退任した後、2015年3月までソウル大学グローバル社会貢献団長と国際大学院招聘碩座教授として活動し、今は漢陽大学の社会奉仕団長をかねて国際学部特訓教授として在任中。ソウル大学経済学科を卒業し、1985から1987までイギリス・ロンドン大学で研修をした。さらに、2003年にはウズベキスタンのサマルカンド外国語大学で名誉政治学博士号を取得した。



森本 敏 拓殖大学総長・元日本防衛大臣

第11代防衛大臣。現在、拓殖大学学長及び防衛省の特別顧問を務める。情報調査局企画課安全保障政策室長、外務大臣官房領事移住部領事移住政策課長等を経て、ナイジェリア日本国大使館参事官、在アメリカ合衆国日本国大使館一等書記官として勤務する。アメリカのタフツ大学(Tufts University)・フレッチャー法律外交大学院(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先任研究員、ブルキンス研究所首席客員研究員を歴任。外務省入省の前には航空自衛隊で服務した。防衛大学校を卒業。



金景一 北京大学校教授

1953年生まれ。中国延辺大学中文学部を卒業し、北京大学国際関係学院にて国際政治を専攻し、法学博士号を取得した。日本慶応大地域研究所客員教授・韓国精神文化研究院客員研究員・韓国慶南大極東問題研究所客員研究員を経て、北京大朝鮮文化研究所所長・韓半島研究中心常任副主任を歴任した。現在は北京大外国語学院の教授であり、韓半島問題フォーラム主任・中央民族大特任教授・中韓交流協会理事・中国アジアアフリカ発展交流協会理事を兼ねている。



金光億 山東大学人文社会大一級教授

ソウル大学社会科学大学教授を歴任し、現代中国学会とソウル大学「中国研究所」を設立。ハーバード大学と北京大学、南京大学をはじめとする中国の多くの大学において招聘教授として中国関係に関する講義を行った。現在ソウル大学の名誉教授であり、中国教育部により人文社会科学一級教授に特任され、山東大学に在職している。中国に詳しい著名な学者として<革命と改革のなかの中国農民>をはじめ、多数の著書がある。ソウル大学を卒業し、イギリスの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で中国研究で社会人類学修士号と博士号を取得した。



黄玉順 山東大学儒学高等研究院副院長

1957年8月生まれ。成都出身。中国社会科学院哲学博士。現職は山東「泰山学者」特別招聘専門家として、山東大学儒学高等研究院教授であり、副院長を務める。 「国際儒学連合会」理事、「中華孔子学会」常務理事、「中国哲学史学会」理事を兼任。「中国社会科学院」儒教研究センター学術委員、中国人民大学「孔子研究院」学術委員。四川大学「国際留学研究院学術委員会」副主任。唐代儒学における重要学派である「生活儒学」を創設者であり、中国倫理学と政治哲学における最新研究領域の「中国正義論」を発表するなどの学術活動を行っている。



張浩秀 忠南歴史文化研究院院長

1956年京畿始興生まれ。延世大学校史学科を卒業し、同大学院にて史学(考古学)で文学修士号を取得した。ソウル大学校大学院にて考古美術学博士課程を修了し、清州大学校大学院環形造形学科にて工学博士を取得した。文化財庁専門委員、忠清北道文化財研究院副院長・院長、韓国伝統文化大学校文化遺産融合大学院客員教授を歴任し、現在は忠清南道歴史文化研究院の院長を務めている。1997年に国務総理賞を受賞した。著書に『北の考古学と文化財管理』(2000)、『文化財学概論』(2002)、『文化財学：理論と方法』(2008)、『文化財保存活用論』(2012)(all in Korean)がある。

参加者の紹介



鄭少雄 中国社会科学院教授

北京大学でエスノロジー博士号を取得。研究分野は中国-チベットの関係、チベット原住民族長の政治学、歴史人類学、生態人類学である。2010年から2012年まで、中国社会科学院・社会学研究所で博士課程を経て研究員として勤務し、2013年以降は人類学科の助教授を務める。現職は「社会文化人類学研究センター(Center for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Studies (CASS))」書記長である。
中国西南地域における民族関係と地域ガバナンスを取り上げた最近著書の＜Kangding Native Chieftains between the Han Chinese and Tibetans: A life History of the Last Mingzheng Tusi＞(1902-1922) (Beijing: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16)をはじめ、多数の論文を出版した。 最近＜History, reciprocity and the management of public environmental resources in Western China Mountains＞(2016, Manchester)、＜Grassland Policy in Contemporary Inner Mongolia and the Responses of Mongol Herdsmen: Cases of two Young Men＞(2015, Toronto)、＜「Wula」in Sichuan Tibetan Area: A Way of Transportation as the Representation of Morality, Aesthetics and Ethnic Identity＞(2010, Seoul) などのテーマで国際会議において報告した。



李相均
忠南歴史文化研究院歴史博物館選任研究員

1973年慶北慶州生まれ。ソウル大学植物生産科学部を卒業し、韓国学中央研究院にて人類学博士号を取得した。中国中央民族大学の朝鮮・韓国学研究中心での研究員生活を経て、現在は忠南歴史文化研究院の選任研究員として勤めている。2015年に忠南道知事から表彰された。著書として『日帝植民地海港都市の近代的再編成研究』(2013)『現代中国社会種族伝統の実践と脈略』(2013)『ソウル近郊宗中と宗中財産の変容』(2016)(all in Korean)がある。



金雄西 韓国海洋学会会長・韓国海洋科学技術院海底環境資源研究本部専任研究員

「海洋資源研究本部」本部長、先任研究本部長、第1副院長などを歴任。「韓国海洋科学技術院(KIOST)」において海洋生物と海洋環境について研究している。科学技術連合大学院大学(UST)教授であり、「韓国海洋学会」会長、「韓国自然環境保全協会」副会長、「韓国海洋科学技術協議会」副会長を務める。「2012麗水国際博覧会」の誘致及び麗水EXPO支援団団長、麗水世界博覧会組織委員会の企画諮問委員として、麗水EXPOの成功裏での開催に貢献したことが評価され、銅塔産業勲章を受章した。「国際海底機構(ISA)」法律技術委員、「国際海洋鉱物協会(IMMS)」理事、「北太平洋海洋科学機関(PICES)」海洋生物委員などを歴任するなど、国際的にも活動している。一方、「海のシルクロード」の探険隊長を務め、フランスの深海潜水艇に乗って北東太平洋の水深5,000mの深海を探査するなど、韓国人としては最も深海を探査した記録を保有する。100以上の海洋に関する著書、編著書、翻訳書、監修書籍などを出刊し、海洋科学の重要性を広く発信している。ソウル大学で理学士と理学修士号を取得し、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州立大学(Stony Brook)で理学博士号を取得。



崔仲基 仁荷大学名誉教授・元韓国海洋学会長

仁荷大学「西海沿岸環境研究センター」所長、「海洋科学技術研究所」所長、海洋学科の教授を経て、今は同大学名誉教授であり、「韓国ナショナルトラスト」の共同代表、「国立公園を守る市民の集い」の共同代表を務める。「韓国原生生物学会」会長、「国際黄海学会」会長、「韓国海洋科学技術振興院」理事を歴任、海洋水産部・海洋政策諮問委員と「韓国海洋学会」会長を歴任。2008年～2009年に中国海洋大学訪問教授、中国科学院・海洋研究所訪問教授、「中韓海洋科学共同研究所」諮問委員として活動し、米メリーランド大学及び「ウッズホール海洋研究所」客員研究員として勤務。ソウル大学を卒業し、同大学院で海洋学理学博士号を取得。



東梅貞義
公益財団法人ＷＷＦジャパン　自然保護室長

１９６５年生まれ。１９９０年に日本で国際基督教大学教養学部理学科卒業、英国エジンバラ大学で自然資源管理を専攻し１９９１年に修士号取得。１９９２年WWFジャパンに入局し、日本国内の重要湿地の保全活動に携わる。２０００年から国際自然保護プロジェクト、黄海エコリージョン保全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プロジェクトマネージャーとして中国と韓国の沿岸域の生物多様性保全活動を支援してきた。２０１１年７月から現職。



權宰一 韓国海洋科学技術院責任研究員

1972年生まれ。釜山大学校海洋科学学士および同大学院修士卒業後、米国ウィリアムメアリー大学(College of William and Mary)にて海洋学博士号を取得した。韓国海洋科学技術院にて長年研究員として勤めており、韓中海洋科学共同研究センターの所長を経て、今は韓国海洋科学技術院の責任研究員を務める。



张朝晖 中国-PEMSEA 持続可能沿岸管理協力研究所副所長

1970年生まれ。国家海洋局第1海洋研究所研究員であり、海洋生態系評価と管理技術研究団体の先導者である。現在中国-PEMSEA海岸ベルトで管理合作センターの副主任に就いており、国家級海洋生態文明試験区域・自然保護区域・海洋特別保護区域の審査専門委員職に携わっている。また、国連東北アジア海洋保護区ネットワーク（UN-ESCAP NEAMPAN）を仕切るなど、社会と学術両面で活躍している。2005年以来40に至る研究プロジェクトを主導しつつ、国内外の定期刊行物に50編余りの論文を発表し、訳書を含み5作の著書を出版している。国家海洋局海洋科学技術省2等賞を2回受賞した。



許再寧 大田大学土木工学科教授

大田大学土木工学科教授。また、「大田環境運動」常任議長と「韓国水資源公社・相生協力委員会」共同委員長を務めており、「忠南政策諮問委員会」委員長(兼海水産分科委員長)として活動している。「韓国水資源学会」大田・忠清支会会長を務めた。1989年日本大阪大学で工学博士号を取得。



安忠荣 同伴成長委員会委員長

同伴成長委員会委員長および中央大学国際大学院碩座教授を兼ねる。主な経歴としてはKOTRA外国人投資オンブズマン(06.05-14.07)・大統領直属規制改革委員会委員(09.01-10.06)・大統領諮問国家競争力強化委員会委員 (08.04-11.05)などがあり、1974年から2006年まで中央大学政経学部経済学科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うち、対外経済政策研究院(KIEP)院長 (02.01-05.01)など、民間・政府の要職を歴任した。主な著書および論文に「現代東アジア經濟論」 日本岩波書店, 2000.「現代韓國東アジア經濟論」 博英社, 2001.(in Korean)「現代東亞經濟論」 北京大出版社, 2004.(in Chinese)などがあり、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Asian Journal of Economics, Global Asiaなど世界的学術誌・単行本シリーズに論文が登載された。



金道薰 西江大学校教授・元産業研究院長

2016年2学期より西江大学校国際大学院にて「東アジアの産業生態界」を題に講義を行っている。その前には国策研究機関である産業研究院で主な経歴を積んだ。ソウル大学校卒業直後の1979年に産業研究院に入社し、動向分析室長・産業政策室長・国際産業協力室長・研究本部長などの補職を経、2013年5月から2016年5月まで院長を務めた。産業研究院に席を置きながら、海外研修・国際機構勤務などの経験を広く重ねた。1985年から1990年まではフランス・パリ第1大学に留学し、経済学博士号を取得した。1997年9月から1999年9月まではOECD貿易局にて主席行政官を務めた。2011年8月から2012年8月にかけて、米国ワシントン大学校にて客員学者として活動した。産業研究院に在職している間は産業通商資源部（長官諮問官）・外交通商部（FTA民間諮問委員）・公正取引委員会（市場構造分析委員会委員長）・関税長（関税審議委員会）などの政府機関に対する諮問活動を行った。最近では同伴成長委員会委員・財政政策諮問会議委員として活動した。研究および講義の専攻分野としては通商政策（FTA・WTOなど）・産業政策・規制改革などがある。韓国の産業発展経験を開発途上国に紹介し、諮問する様々な活動を行っている。また、韓国規制学会・韓国EU学会の学会長も務めた。このような専攻分野に関する主な著書として、『韓国経済60年史－産業』『韓米・韓EU FTA発効と製造業の対応』『韓中日FTAに伴う産業別影響分析』『経済開発戦略プログラム開発協力モデル』『韓中FTA締結に伴う製造業部門の産業別効果分析』『韓日FTA締結時の製造業分野輸出入効果分析』(All in Korean)『Final Report of the Policy Consulting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Algeria and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lgeria』(in English)がある。



超玉璞 中国山東大学東北亜研究所所長

1946年生まれ。山東大学で経済学学士・修士号を取得した。北朝鮮の金日成総合大学で客員研究員として在籍し、後に韓国の湖西大学で経営学博士号を取得した。山東大学(威海キャンパス)講師、「威海市標準化研究所」所長、威海経済技術開発区区庁副庁長を経て、2004年から現在に至るまでは山東大学(威海)教授・副総長であり、山東大学「北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主任を兼ねている。主な研究分野は韓半島の政治経済である。



李承新 対外経済政策研究院中国チーム長

韓国貿易協会国際貿易研究院にて主席研究院として勤めた経験があり、2012年7月から2年間は対外経済政策研究院(KIEP)北京事務所の所長を歴任した。現在は対外経済政策研究院で中国チームのチーム長を務めている。最近の研究成果としては「ニューノーマル時代中小企業の対外競争力を高めるための政策課題研究: 韓国・台湾を中心に」（研究責任者）および「中速成長の中国経済と韓中経済協力」（共著）(all in Korean)などがある。



李章雨 慶北大学経営学部教授

ソウル大学経営学科を卒業し、韓国科学技術院経営化学科にて修士および博士号を取得した。慶北大学経営学部教授として在職しており、電子部品研究院理事長・同伴成長委員会委員・社団法人韓国文化産業フォーラム共同代表などとして活動している。韓国経営学会会長・財団法人創造経済研究院院長・大統領直属未来企画委員・韓国中小企業学会会長・戦略経営学会会長・国民経済諮問会議委員（公正経済分科）・未来創造科学部創造経済諮問委員などを歴任した。2001年には米国Journal of Managementの最高論文賞を受賞し、国内外の権威ある学会誌に60編余りの論文を発表（経営戦略・ベンチャー創業・中小企業経営など）している。 財団法人創造経済研究院の院長として、「一人創造企業」「青年創職」「クリエイティブ人材同伴制度」など、創造雇用に関する新たな政策を提案してきた。発行物に『ハン経営』『ベンチャー経営』『スモールジャイアンツ・大韓民国強小企業』『創発経営』(all in Korean)などがある。



高定敏 弘益大学文化芸術MBA教授

「世宗学堂財団」理事と「韓国文化観光研究院」理事を兼任。弘益大学文化芸術MBA教授。1986から2009年までは「サムスン経済研究院」首席研究員として勤務をし、「映画振興委員会」副委員長を歴任した。著書には <文化コンテンツ経営戦略(2007)>、<文化生産の前衛> <創造地区(2009)> <韓流フォーエバー(2012)>(all in Korean) などがある。延世大学経営学科を卒業、成均館大学経営学科大学院で博士号を取得し、米国ピッツバーグ経営大学院でマーケティング過程を修了。

参加者の紹介



宋远方 中国人民大学教授

1957年生まれ。中国人民大学情報学科を卒業し、米国オクラホマ大学にて経営学修士号を、中国人民大学商学院にて博士号を取得した。1985年よりこれまで中国人民大学にて経営学を教えており、中でも物流管理・SCM管理・企業戦略と情報化を主な研究テーマとしている。主要著書としては『医薬物類とSCM管理』『SCM管理と情報技術』『E-Biz』『経営情報システム』『経営情報システム例題集』(all in Chinese)がある。中国物流学会副会長・中国教育部E-Biz教授専門家委員・中国人民大学SCM経営戦略研究センター主任・中国人民大学中小企業研究所副主任などを兼ねた。



大谷新太郎 阪南大学国際観光学科教授

富山県出身。立教大学大学院観光学研究科博士課程後期課程修了。阪南大学国際観光学科順教授として観光マーケティング論・観光情報論を教えている。主な研究テーマは、観光現象と情報技術の関係、観光経営・マーケティングである。著作に「IT革命と旅行業」（日本観光協会編）『観光実務ハンドブック』（丸善，2007年）などがある。



金瑛燮
成均館大学校デザイン大学院建築学教授

成均館大学校にて学士取得後、1982年に建築文化設計研究所を開設、2007年まで㈱金瑛燮+建築文化建築士事務所を運営してきた。イタリア・ドイツ・日本・ロシア・中国・インド・ウズベキスタン・アゼルバイジャンなど多くの国でシンポジウム発表および作品展示の経歴があり、東風2000タイトルの日本東京臨海副都心新都市計画と新日本行政首都計画および中国瀋陽の子ども宮殿計画の建築家として招待された。また、東京大学・グラナダ大学など海外有数の大学で招請講演会を開き、2007年3月からは成均館大学校建築学科碩座教授として招聘され、2008年から同大学建築学科および建築デザイン大学院教授として勤め、成均建築年設計院（SKAi）の院長を歴任した。社会活動としては、21世紀の新しい都市と住居を題にした第4次IAA国際シンポジウムソウル大会の組織委員長・漢江ルネッサンスマスタープランナー・ソウル市都市デザインフォーラム委員会委員長・ソウル公共デザイン委員会委員長を歴任している。また、第1期国家建築政策委員会委員会・行政改革市民連合共同代表・行政安全部公共デザインフォーラム委員長・世宗市推進委員会委員、済州特別自治道景観委員会委員長・ソウル市民デザイン委員会都市空間環境デザイン文化委員会として活動しており、現在は忠清南道経済ビジョン委員会清洲環境文化委員長・安眠島開発総括企画委員会委員長・江陵市オリンピック準備関連都心再生共同委員長職に携わっている。建築関係の成果としては、金壽根建築賞・大韓民国関係文化代償・建築文化代償など数多くの建築設計受賞作が乗っている作品集が、2003年オーストラリアのイメージ社（Images Publishing）より「世界100人のマスター建築家全集シリーズ」(in English)のうち53番目の作家に選ばれ、出版された。「世界の建築家1000人」人名事典にマスターアーキテクトとして搭載され、2007年には日本のArt Design出版社によって発刊された「世界の建築家51人 コンセプトと作品(World Architects 51 Concepts&Works)」に選定・収録された。



姜賢秀 忠南研究院院長

「大統領諮問国家均衡発展委員会」諮問委員、「韓国空間環境学会」会長などを歴任し、今は「忠南研究院」院長を務める。イギリス・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とアメリカ・MIT大学で客員研究員として勤務、現在は韓国中部大学都市行政学科教授である。主な著書に <現代都市理論の転換>、<新地域発展論>、<地域均衡発展論の再構成>、<都市に対する権利>(all in Korean) などがある。ソウル大学工科大学を卒業、同大学で都市計画学修士号、行政学博士号を取得した。



王麗 中国国家発展改革委員会・国土研究開発及び地区経済研究所研究員

主な研究方向は持続可能な発展、地域発展である。最近、中央省庁と委員会及び地方政府委託の約50の各種研究課題に参加。論文30編、著書1部、共同著書1部などの学術刊行物がある。主な著書と論文には、＜北京天津河北地域における資源の開発利用と環境保護研究、資源環境側面における中国都市の潜在力研究、中国陸海統括発展研究＞(all in Chinese)などがある。



金善泰 大田大学環境工学科教授

大田大学環境工学科教授であり、「環境問題研究所」所長。また、忠清南道グリーン成長委員会、グリーン成長フォーラムの委員長を務める。「大田忠南市民環境研究所」理事長、「大田環境教育ネットワーク」、「韓国環境ネットワーク」の共同代表として活動。大田大学産学協力団長と「大田環境運動連合」の共同議長を歴任した。ソウル大学濃化学科を卒業し、同大学環境大学院を経って日本京都大学で環境工学科博士号を取得。



俞湖
環境部海外協力担当官

米国ニューヨーク大学大学院生物学科修士を取得した後、環境部で課長として働いている。環境部国際協力官室海外協力担当官および地球環境担当官・水環境政策局水生態保全課長を務めた。



尹敏鎬
日本国際金融情報センター・アジア部特別研究員

世界銀行研究員であり、東西証券経済研究所首席研究員、日本国際金融センター特別研究員を歴任。現在、米州開発銀行アジア事務所の対外総括官・対外総括顧問として勤務している。早稲田大学日韓グローバル研究所の客員研究員、財務省北東アジア研究委員を務め、早稲田大学と麗澤大学で講師として活動。漢陽工科大学工業化学科を卒業し、日本東京工業大学大学院、米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学大学院を修了。東京経済大学大学院で経営学博士号を取得した。



朴在黙 忠南大学社会学科名誉教授

ソウル大学で社会学を勉強し、同学院で修士号及び博士号を取得。1981年には忠南大学社会学科の教授に赴任して2015年8月定年を迎えるまで同大学に在職し、今は同大学の名誉教授。初期には発展社会学に関心があったが、1990年ごろ環境と社会との関係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今まで主に環境社会学の分野において講義と研究を行っている。地域社会、市民団体及び市民運動に関する論文を発表。最近発表された主な著書には＜大田社会論＞(共著、2013年、大田発展研究院)、《韓国社会学の未来：社会学の危機診断と未来展望》(共著、2015年、ナナム)、《環境社会学：自然と社会の出会い(共著、2015年、ハンウル)(all in Korean)などがある。社会学分野における主要学会である「韓国社会学会」(2011年)、「韓国環境社会学会」(2004年から2008年まで)、「韓国NGO学会」(2007年から2009年まで)などの会長を歴任。そのほかに国務総理室、国土交通部などの中央省庁や大田広域市、忠清南道などの地方自治体の各種委員会でも活動し、2015年からは市民団体「環境運動連合」の共同代表を務める。



劉容九
忠南テクノパーク政策企画団長

忠北大学校で物理学で理学博士号を取得した。イギリスのケンブリッジ大学キャバンディッシュ研究所研究員・韓国電子通信研究所選任研究員・忠清地域事業評価院先導産業室長を経て、現在は忠南テクノパークの政策企画団長として勤めている。



内田裕久 東海大学原子力工学科教授

1949年生まれ。 シュトゥットガルト大学化学科金属学専攻博士課程修了し， １９７５-８１年ドイツ、マックス・プランク金属材料研究所研究員を務めた。 １９８１年-現在、学校法人東海大学にて工学部原子力工学科およびSPIRITにて教授として勤務している。日本KSP Inc.の代表理事・CEOである。



金俊泰 公州大学校教授

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サウスウェールズ大学にて建築環境工学専攻で博士号を取得し、1998年より現在に至るまで国立公州大学校建築学部に所属している。建築における太陽エネルギーの利用および建物のエネルギー保存に関する専門家で、韓国エネルギー技術研究院で研究しており、韓国生態環境建築学会の副会長を歴任し、現在は韓国太陽エネルギー学会の学会長を務めている。国際エネルギー機構(IEA)傘下太陽エネルギー冷暖房プログラム(SHC)・建物エネルギープログラム(EBC)・太陽光発電システムプログラム(PVPS)など、国際協力事業に韓国を代表して参加している。主な研究領域は、エコフレンドリーゼロエネルギー建築・建物一体型太陽光発電システム(BIPV)・太陽光熱(PVT)複合システム・高効率断熱材建築適用技術などである。現在韓国エネルギー公団のRPS技術運営委員・調達庁設計評価委員・忠清南道教育庁設計諮問委員・大田市建築委員・洪城郡建築委員などで活動している。



任哲鎬 現代自動車責任研究員

「現代自動車」環境車両戦略企画パート長として、2007年には燃料電池システムを開発した。1992年から1996年までは変速器を、1996年から2001年までは環境車両の駆動系を設計・開発した。その後、2006年まで環境車両戦略を企画する業務を担当した。



盧相梁 韓国エネルギー公団新再生エネルギーセンター所長

1957年生まれ。全北大学校機械工学科を卒業し、1983年から今に至るまでエネルギー管理公団にて勤めてきた。効率技術処効率2チーム長・光州全南支社技術部長・資金運用処資金審査チーム長・政策研究室政策研究チーム長・新再生エネルギーセンター新再生エネルギー産業育成室長・慶南地域本部長・企画調整室長を経て、2015年から新再生エネルギーセンターの所長に就任した。2005年には電力需給有功者として産業資源部長官表彰を、2014年にはエネルギー節約有功者として大統領表彰を受けた。



安正善 忠南女性政策開発院院長

現在、「忠南女性政策開発院」第6代院長であり、公州大学看護学科教授として同大学の学生処長、同大学看護保健大学学長を歴任。また山林庁の自主評価委員としても活動している。「国家人権委員会」性差別調整委員、大田広域市の女性政策諮問官、女性部の男女差別改善委元会委員などの政府活動、さらに「大田環境運動連合」共同議長、「大田参画自治市民連帯」共同議長などを歴任し、主な研究には「ジェンダー主流化の実行に向けたガバナンスの構築方策(韓国デジタル政策学会、2013)」、「地方政府のジェンダー影響評価マニュアル(韓国公共行政研究院 女性政策研究所、2012)」、「地域社会看護総論(玄門社、2012)」(all in Korean)などがある。



李娜栄 中央大学社会学科教授

延世大学で英語英文学科を卒業し、アメリカ・メリーランド大学の女性学科で修士号と博士号を取得。現在、中央大学社会学科の教授を務める。アメリカ・ジョージ・メイソン大学女性学科の元教授。現在、「韓国女性学会」＜韓国女性学＞編集委員長、「韓国質的研究学会」理事、「正義記憶財団」理事、「韓国女性の電話」監査、「平和をつくる女性会」理事、「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敷設の「戦争と女性人権博物館」運営委員、ソウル市「ジェンダー平等委員会」政策分科委員長、ソウル市の学術役務審査委員会委員などを歴任した。

参加者の紹介



蒋永萍
全国婦女連合会傘下女性研究所名誉研究員

全国婦女連合会傘下女性研究所名誉研究員であり、中華女子大学兼職教授・中国結婚家庭研究会常務理事兼副秘書長である。中国労働協会・中国家庭教育学会常務理事、中国婦女研究会・中国社会学学会理事、国務院婦女公委員会家庭専門組のメンバーでもある。主な研究方向は女性の地位およびジェンダー平等測量・評価、女性状態調査・分析、女性労働就職、ソーシャルジェンダーと公共政策である。主な著・編著としては「新たな時期中国女性の社会的地位調査・研究」「社会典型的な中国女性の社会的地位」「社会典型的な都市女性の仕事と家庭」「中国のジェンダー平等と女性発展報告書」(in Chinese)など十数編ある。数度中国社会科学基金をサポートし、全国婦女子連合と国家統計局連合が組織した「第1・2・3期中国婦女子社会的地位調査研究」課題を研究した。国務院婦女公委員会2011-2020年「中国女性発展概要構造と専門家建議案」、全国婦女子連合・科学技術部「女性高位層人材成長発展状況と政策推進」、「ジェンダー平等や女性発展指標研究および応用」などの研究課題と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た。国家統計局とUN人口基金の「性別統計発展と改進」プロジェクトの専門顧問である。



千田有紀 武蔵大学社会学部教授

東京大学文学部社会学科卒業後，同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にて教育学修士号を，社会系研究科にて修士・博士号を取得した。東京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を経て，現在は武蔵大学社会学部で教えている。主な著書に『日本型近代家族―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女性学/男性学』がある。



金良姫 ジェンダー&リーダーシップ代表

現在「ジェンダー&リーダーシップ」代表であり、「女性環境連帯」共同代表。また、「女性人力の活用とジェンダー平等実践TFコンサルタント」と「女性人オアカデミー」の教授を務める。女性家族部・自体評価委員及び女性政策諮問委員会、「忠南ジェンダー平等ビジョン委員会」委員、「京畿道ジェンダー平等委員会」委員を兼任。Loyola University Chicagoにおいて社会心理学博士号を取得した。主な経歴には、「韓国女性政策研究院」先任研究委員、「GM研究」本部長、「平等政策研究所」室長などがある。淑明女子大学とカトリック大学兼任教授、アメリカ・ノースカロライナ大学客員教授として勤務。＜女性、リーダー、そして女性リーダーシップ(サムスン経済研究所)、＜持続可能でジェンダー・センシティブなガバナンスの構築に向けた環境改革課題(環境部)＞、＜企業内における男女管理者の比較研究＞(韓国女性政策研究院)、＜ジェンダー主流化に関する制度の効果的な定着に向けた研究(韓国女性政策研究院)(all in Korean)など多数の著書がある。



姜明求 ソウル大学・アジア研究所所長

漢陽大学新聞学科を卒業、ソウル大学新聞学科で修士号を、アメリカ・アイオワ大学で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修士号及び博士号を取得。現在、ソウル大学「アジア研究所」所長を務めており、1987年からはソウル大学言論情報学科において東アジアメディア論、批判コミュニケーション、質的研究方法論、メディア文化研究などを教えている。東京大学と中国の伝媒大学で特任教授を経て、6年前からは中国清華大学と北京大学で講義。

「世界文化学会」のアジア地域代表理事、「グローバル・インターネット・ガバナンス」の共同代表として活動し、アジア文化研究に向けたネットワークの構築に貢献する。ソウル大学「基礎教育院」院長及び「自由専攻学部推進団」団長、「教授学習開発センター」などの業務を遂行している。ソウル大学「作文(グルスギ)センター」を設立し、科学技術作文教育を制度化する。このような大学教育の国際化や革新に寄与した功労が認められ、2014年には「ソウル大学教育賞」を受賞。ここ数年間、冷戦とテレビ放送の文化史、独立後における韓国消費文化の形成、東アジア家族関係における再現比較、知識生産のコロニアルなどに関する研究を行う。著書に《韓国ジャーナリズム理論》、《消費大衆文化とポストモダニズム》、《家族とメディア》(共著)、《日中韓の青年を語る》(共編) などがあり、『韓国メディアの構造変動とメディア戦争』、『愛国的熱望と崇高な科学』(共著)、『文化的冷戦と韓国最初のテレビHLKZ』(共著)(all in Korean)、『Are our families still Confucian Representations of family in East Asian television dramas』(共著)(in English)、『中国におけるテレビ視聴者のドラマ消費趣向図』(共著)、『いかなる学者と教授を育てるべきか：大学の評価と知識の生産』(all in Korean)など多数の論文を、国内外の学術誌に掲載している。



金洪中 ソウル大学校社会学科教授

ソウル大学社会学科及び同大学院を卒業。フランス国立社会科学高等研究院(☒cole des hautes é tudes en sciences sociales)で博士を取得した。現在はソウル大学社会学科教授として、専門は社会理論と文化社会学である。最近は東アジア青年たちの多様な文化現象と彼らの夢と能力について研究している。



寺地幹人 茨城大学人文学部講師

寺地幹人：茨城大学人文学部講師（常勤）。専門は社会学。特に若者の社会学、労働社会学、教育の社会学を専門とする。主論文として、「経済的成功に対する若者の意識の変容――個人的な要因の衰退と非個人的な要因の台頭」（2016年、『現代若者の幸福――不安感社会を生きる』[ISBN 9784769915775]所収）、「대도시 거주 20대의 직업의식 분석」（2016年、『한중일 청년을 말하다』[ISBN 9788963472454]所収＝「大都市の20歳代の職業意識の分析」[『労働政策研究報告書』No.148 所収]の翻訳）がある。



王增勇
台湾国立政治大学社会事業研究所副教授

台湾国立政治大学社会産業研究所の所長兼副教授である。米コロンビア大学にて社会事業の修士号を、カナダのトロント大学で博士号を取得した。高齢化・LGBT・先住民人権分野における消費者運動を活発に展開している。2008年から2012年にかけてTAFC(Taiwan Association of Family Caregivers)の理事長を務め、2009年から2012年まではJournal of Taiwan Radical Quarterly in Social Scienceの編集長として活動した。



金艾瓏 光云大学言論情報学科教授

ソウル大学言論情報学科とロンドン大学ゴールドスミス校で修学。現在は光云大学メディア映像学部教授を務める。現代のメディア環境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化や社会現象、特に主体の倫理学と感受性の社会的実践について研究して教えている。著書には、<言葉の表情>と<我々ー人間:生命の共生について>(all in Korean)など多数の共著と論文がある。



李在恩 忠北大学校教授

延世大学校にて行政学博士号を取得し、2000年から忠北大学校行政学科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専攻分野は危機管理・災難管理・組織理論である。国家危機管理学会会長と忠北大学校国家危機管理研究所の所長を歴任しており、現在は韓国政策フォーラム会長・ISCEM(International Society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国際危機管理学会)共同会長・危機管理理論と実践代表・安全忠南ビジョン委員会委員長として活動している。

제2회 환황해포럼 PROGRAM

2nd Pan-Yellow Sea Forum

第二届 环黄海论坛

第2回 環黄海フォーラム